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52.58 (+381.41)		840.89 (+16.43)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11 (+0.013)		1395.15 (-2.55)



정의선 회장, 美서 제네시스 GV90 첫 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GV 90 월드 프리미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네시스북미법인 COO(최고운영책임자) 테드로스 맵기스테, 현대차그룹 R&D본부장 만프레드 하러 사장,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CCO 겸 CDO 루크 동커볼케 사장. <관련기사 4면>

/현대차그룹

신협 862곳 중 166곳 자본잠식 3년째 적자... 지역금융 '빨간불'

메트로경제, 신협 전수조사

자본총계 '0' 완전자본잠식 38곳
지방중심 부동산PF 대출 리스크 탓
두 자릿수 연체율 조합도 51곳 달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신용협동조합(신협) 166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황이다. 신협이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금융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올 상반기 정기공시를 게시한 전국 862개 신협 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6곳이 자본잠식(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황) 상태다. 10곳 중 2곳이 자본잠식에 빠진 셈이다.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도 총 51곳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토지담보대출 등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잠식 조합은 지역 곳곳에서 확인됐다. 전북·대구·전남광주가 각각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각 1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부산은 각 15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이 모두 소진되고, 자본총계가 0 이하인 상황)에 빠진 조합은 모두 38곳이다.

특히, 대구자본잠식조합이 7곳(대구수성·대구영광·방촌·중앙로·포산·한아름·효천)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경일·김천·대동·충양·호명)·전북(군산반석·군산해성·송천·익산·전주덕진)·부산(당감·부산행복·북부산·성가·승학)은 각 5곳이다.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이여 경남 4곳(거제중앙·경남동부·남해·진해), 서울 3곳(다운·묵동·서울서부), 인천(송림중앙·송의)·충남(공주·태안)·세종(세종부강·세종) 각 2곳, 경기(성남대원)·충북(청주서원)·전남광주(계림)는 1곳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곳도 확인됐다. 전북 익산신협의 경우 잠식률이 무려 857.29%다. 자본금은 9억4600만원인 반면 자본총계는 -71억6400만원이다. 부산 북부산신협은 잠식률이 322.6%다. 자본금 91억3100만원, 자본총계 -203억2500만원이다.

자본잠식은 손실이 쌓이면서 조합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부분자본잠식, 손실이 더 커져 자본총계마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다.

당장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익잉여금이 결손인 조합은 총 21곳으로 파악됐다.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즉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잠식 총계가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조합들의 자본금이 잠식되는 배경에는 신협의 계속되는 적자 기조가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상반기 18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에 이어 3년째 적자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관련 대출 채권의 부실이 이어지면서 지방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며 손실이 점차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연체율도 상승세다. 상반기 연체대출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조합은 총 51곳에 달한다. 전국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신협이다.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28.44%다. 경북 왜관신협은 27.24%, 호명신협은 26.10% 수준의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신협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를 새롭게 설립해 본격적인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10월부터 가동되는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매각에 더해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 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조합의 재무·경영상황을 경영진단으로 점검한 뒤,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합리화 지원자금 등을 활용해 경영 개선 및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별 조합별 진단과 의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합병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DX노조 3000명 거리 집결 ‘단체 연차’ 업무공백 논란

삼성전자 동행노조, 오늘 집회

노조, ‘휴무 사용’ 쟁의행위와 달라
노조법상 정상업무 저해시 ‘쟁의행위’
참가규모·근태 처리방식 여부 ‘관건’

삼성전자 다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3000명 규모의 집회에 나선다. 쟁의 절차 없이 연차와 휴무를 활용한 집단행동인 만큼 실제 업무공백 여부가 적법성을 가를 쟁점이다. 여기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내년 공동교섭을 거부하면서 3만명 규모로 커진 동행노조의 향후 교섭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역과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인다. 예상 참가자는 약 3000명이다. 조합원들은 연차와 회사 휴무제도의 ‘D-Day’ 등을 활용해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는 근무일에 조합원 수천 명이 집단으로 휴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동행노조는 정상적인 휴무를 쓴 자발적 참여인 만큼 파업 등 쟁의행위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휴무 사용 자체보다 집단행동의 목적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규정한다. 대

법원도 집단 연차의 형식보다 목적과 방식을 따져왔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같은 날 연차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21일 실제 참가 규모와 근태 처리 방식, 사업장별 업무공백 여부가 관건이다.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만큼 평화의무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이번 집회는 일정과 장소가 사전에 알려진 만큼 실제 진행 방식과 업무 차질 정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조가 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는 배경에는 DX와 반도체를 담당하는 다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보상 격차가 있다. 동행노조는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과 성과급 재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수원사업장에 이어 이번에는 서초사옥으로 집단행동 무대를 옮겼다.

삼성전자는 DX와 DS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며 성과급 재원도 각각 관리하고 있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다른 부문의 보상 재원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ja_tea@



metro

신세계 강남·롯데 잠실 ‘4조 클럽’ 눈앞

백화점, 명품·외국인 소비 업황 개선
신세계 강남, 연매출 4조 ‘가시권’
롯데 잠실, 하반기 20% 고성장 관전

국내 백화점 매출 1·2위인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올해 나란히 연매출 4조원 고지를 넘보고 있다. 명품과 외국인 소비를 중심으로 백화점 업황이 가파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대형 핵심 점포로 매출이 집중되면서 사상 첫 ‘4조원 백화점’ 탄생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계 강남점은 4조원 돌파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고, 롯데 잠실점 역시 상반기 성장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경우 4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2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백화점 점포별 가매액 순위는 신세계강남점이 3조 6720억원으로 1위, 롯데 잠실점이 3조 301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세계 센텀시티점(2조 2640억원), 롯데 본점(2조 186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신세계 강남점이 올해 4조원을 넘기 위해 필요한 성

장률은 약 8.9%다. 롯데 잠실점은 약 21.2% 증가해야 한다. 양사에 따르면 강남점과 잠실점 모두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대 성장한 만큼 강남점은 현재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4조원 달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잠실점도 4조원 사정권에 들어왔지만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가는지가 관건이다.

신세계강남점은 4조원 돌파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상반기 20%대 성장세를 기록한 강남점은 하반기 성장세가 8.9% 수준으로 크게 둔화하더라도 4조원 고지를 밟는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의 분기별 가매액 신장률은 1분기 22%에서 2분기 27%로 오히려 확대됐으며, 2분기 명품 매출은 41% 급증했다. 외국인 매출 또한 1분기 90%, 2분기 149%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전년 대비 120% 늘어나는 등 견조한 인바운드 수요와 VIP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법원 내부 “할일 한 것” vs “모양새 아쉬워” /사진 뉴시스
▲왕이, ‘北핵보유국 지위 반대’ 간접 피력…“中, 비확산 체제 준수 책임 의무 다 할 것”

▲국힘 재경위원 “與 예결소위원장까지 말겠다고…재경위마저 싸움터 만들어”
▲김종인 “국민의힘, 이진숙 말 들으면 민심 얻기 힘들 것”…5·18 폄해 논란 비판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法 “사유 인정돼”
▲덕수궁 야외 결혼식 검토 끝에 무산…“별도 계획 없어”

K-뷰티, 구조적 턴어라운드 국면… 주요기업 목표주가 급등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에이피알 등 주요기업 실적 개선
증권가 “시장 기대치 웃도는 성장”

‘K-뷰티’ 신흥강자로 불리는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화장품 대장주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상반기 영업성적표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모두 앞지르며 ‘A’학점을 받았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에이피알의 시가총액은 14조4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모레퍼시픽(7조9901억원)과 LG생활건강(4조5450억원)의 합산 시가총액보다 많다. 이는 탄탄한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한 덕분이다. 에이피알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3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2440억원, LG생활건강은 2106억원을 기록했다. 에이피알의 영업이익은 아모레퍼시픽보다 988억원, LG생활건강보다 1322억원 많았다.

에이피알은 “북미를 중심으로 구축한



따능AI로 생성한 ‘K-뷰티주의 세대교체’ 이미지.

성장 기반이 유럽 등 신규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며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가파르게 오른 화장품주의 추가 상승을 내다보고 목표 주가를 속속 올리고 있다. 최근 신영증권은 에이피알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0% 높은 56

만원으로 내걸었다. 한화투자증권(55만원), 흥국증권(50만원) 등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는 K-뷰티가 구조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고, 특정 유통 채널과 일부 대형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기존 공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7.3% 증가한 70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역대 모든 상반기 실적 중 최대치를 다시 썼다.

이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에이피알은 최근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톱 100’에 제품 11개가 들어가는 등 브랜드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며 “회사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확대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침투율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고, 독보적인 마케팅 역량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북미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돼 있고, 유럽 시장은 온-오프라인 성장 확산이 지속 중”이라며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 달성과 글로벌 뷰티 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 1면 ‘신세계 강남·롯데…’서 계속

백화점, 구매건수·단가 ↑ 대형점포 중심 질적성장

센트럴시티 복합 인프라를 등에 업은 독보적 입지도 강남점의 강력한 무기다. 연간 약 51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직결된 JW메리어트호텔 서울 투숙객, 한강 관광 연계 외국인 수요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선 거대한 집객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롯데 잠실점은 4조 원 문턱에서 하반기 성장을 유지가 최종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잠실점이 4조 원을 넘기 위해서는 연간 21.2%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2025년 매출에 상반기 수준인 20% 성장률을 단순 대입하면 잠실점은 3조 9612억 원으로 4조 원 코앞에 두게 된다.

다만 잠실점의 상승 동력 역시 만만치 않다. 롯데백화점 국내 대형점의 2분기 매출은 21% 늘었고, 잠실점 역시 상반기 20%대 성장세를 달성했다. 명품과 고마진 패션의 안정적인 판매 호조와 더불어, 롯데월드몰과 결합된 복합 플랫폼 경쟁력이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젊은 층을 끌어모으며 4조 원 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점포들의 질주는 백화점 업계 전반의 유례없는 호황과 맞물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외유명브랜드(명품) 매출은 30.8% 늘어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이번 호황은 구매건수와 구매단가가 동반 상승하는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1~6월 백화점 구매건수는 매달 전년 대비 증가했고, 6월 구매단가는 13만5621원으로 1년 전보다 15.2% 높아졌다. 점포당 매출도 1월 17.4%, 2월 30.1%, 3월 18.8%, 4월 26.1%, 5월 26.8%, 6월 24.4%씩 증가했다. 고객수와 객단가가 함께 뛰면서 대형 점포로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원화 약세까지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1071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늘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고소득층과 외국인 소비를 흡수하는 초대형 점포의 매출 집중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계절적 요인도 긍정적이다. 통상 백화점은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와 연말 세일·사은행사가 집중되는 4분기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세계 강남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성과급 60% 주식 지급

주식 중심 성과급 지급구조 전환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

SK하이닉스 노사가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성과급 제도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은 6.3% 인상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지급방식과 임금 인상률,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6.3%로 정해졌다.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은 전체 지급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1

주식 지급분 가운데 40%는 당해 연도에 지급돼 즉시 매도할 수 있다. 나머지 20%는 1년 후와 2년 후 각각 10%씩 이연 지급한다. 이연 지급분은 지급 당해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가운데 하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구성원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희망하는 구성원은 주식 지급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자금 운용 등의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급할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세 시점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번 합의에는 회사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노사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적자 발생 시 고용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노사가 합의한 뒤 임금의 3% 이내를 이연 지급하고, 경영

이 정상화되면 회사가 이를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과거에도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때 임금 이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바 있다.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도 임금의 일정 부분을 이연하고 휴직 전환이 확인된 뒤 지급했다.

성과급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밖에도 노사는 식단가 인상과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관련 안건에도 합의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2040년 국가 전력수요 전망치 폭증… 추가 원전 논의 불붙나

반도체·AI 등 산업 급격한 환경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감당 어려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할 경우 2040년 국가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 분량인 27GW(기가와트) 가량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이 같은 전력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법) 수립 과정에서 추가 원전 건설 논의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12차 전기법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 계획소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전력 수요 재전망을 공개했다.

새로 제시된 2040년 연중 최대 전력수

요 전망치는 158.4~165.0GW(목표수요 기준)로, 기존 전망치(131.8~138.2GW) 대비 약 20% (26.6~26.8GW) 상향 조정됐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APR 1400, 1.4GW) 약 19기를 100% 가동해야 충족할 수 있는 수치다. 수요 관리책을 제외한 순수 기준수요로 산정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는 최고 186.4GW, 연간 소비 전력량은 1026.6TWh까지 치솟는다.

이처럼 불과 반년 만에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수정한 배경에는 반도체와 AI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다. 분야별로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에서 20.6GW, AI 데이터센터에서 7.9GW의 수요가 추가 반영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 초 3차 토론회 발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수요 예측을 재전망하게 됐다”며 “2050년까지 예정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이 2040년으

로 앞당겨지고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건설, AI 데이터센터 신설 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대규모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과소 예측으로 발전력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범위형(데인지)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 발전력 준비가 어려운 만큼,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의 추가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전력수요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발전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더라도 메가 프로젝트 필요 전력의 58% 수준만 충당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정책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100% 달성해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고려할 때 약 150TWh로 메가프로젝트 추가수요(약 260TWh) 총량에는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외에, 12차 전기법에 원전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부는 오는 26일 6차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중단, 신규 원전 건설 여부, 송배전망 및 ESS·양수 등 유연전원 배치 방안 등 핵심 쟁점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12차 전기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metro

美·日 금리쇼크에 엔저 장기화… ‘엔캐리 청산’ 압력 커진다

엔·달러 158.18엔, 160엔선 재위협
美·日 외환공조에도 약세 흐름 지속
美 장기채 급등 충격 주요국 확산
日 10년물 30년 만의 고점 기록
기준금리차 축소 전망에 자금회귀

미·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엔화값이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도 본격화하고 있다.

◆ 美 국채금리 ↑… 엔화 약세 지속

20일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의 엔·달러 환율 증가는 달러당 158.18엔을 기록했다. 이날 미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매입 예고가 전해지자 직전일의 159.61엔보다 1.33엔 내렸지만, 뉴욕장 종료 이후 이어진 시드니장과 도쿄장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는 9~11월의 장기채 바이백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환율이 재상승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을 다시금 목전에 뒀다.

앞서 미 외환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규모 엔화매수를 실시했다. 엔·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60엔을 웃도는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값을 의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대규모 달러 매도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으며, 미·일 외환당국은 이후 엔화값 부양을 위한 공조 사실을 확인하며 추가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엔·달러 환율은 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직후 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내렸지만, 최근에는 달러당 160엔 선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엔화 약세를 부각시켜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연 5.33%까지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10년물 금리도 장중 4.76% 수준까지 올랐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서 국채 발행량이 빠르게 늘었고,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키워 국채금리를 끌어 올렸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장기채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규모를 기존 20억달러 규모에서 40억달러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금리쇼크’… ‘엔캐리 청산’ 우려도

미국 발(發) ‘금리쇼크’는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 국채는 선호도와 안정성이 높아,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 채권시장의 자금을 빠르게 흡수해 주요국 국채 금리도 상승한다. 지난 18일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16%까지 올라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같은 날 10년물 금리는 2.96%까지 올라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자산시장에 ‘엔 캐리 트레이드(엔 캐리)’의 청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엔 캐리’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전체 엔 캐리 규모는 약 506조엔 수준인데, 이는 2026년 일본 정부의 연간 예산인 122조엔의 약 4.14배다. 엔 캐리 자

금이 주요국 자산시장에서 이탈하면 주요국 증시나 환율 등에도 부담이 커진다.

엔화 약세의 장기화도 엔 캐리 청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9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적극적인 개입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 연준(Fed)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미·일 기준금리차가 축소되면 엔 캐리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미·일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한 반면, 엔저는 지속되며 엔 캐리 투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일본 국채 금리 급등과 엔저 현상에 따른 헤지 비용 상승으로 해외에 투자되었던 일본 생보사 및 연기금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美 군함 2척 해외건조… K-조선, 현지화 시험대

백악관, 90일 내 경쟁조달계획 마련
후속 물량은 미국 내 생산 원칙 적용
기술 라이선스·공급망 구축도 조건

미국 정부가 외국 조선사에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최대 2척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생산을 원칙으로 기술라이선스와 인력·공급망 현지화까지 요구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도 시장 진입에 따른 실익과 부

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활용해 수상전투함과 통합 화물 해상보급선 등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외국 조선사 참여를 허용하는 대통령 메모를 발표하고, 국방부 등에 90일 내 경쟁조달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 확보, 미국인 고용·훈련, 독점 건조기술 라이선스 제

공, 미국 내 공급망 구축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2척은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지만 이후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지난 2월 해양행동계획(MAP)의 ‘브리지 전략’을 구체화해 동맹국 생산능력으로 자국 건조 역량을 보완한 뒤 생산 체제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구상이다.

첫 번째 조건인 ‘조선소 확보’부터 현지생산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평가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 2척

건조 이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익성이 날 보장은 없고 진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지화 프로젝트도 현지 생산이 어려워 기존 생산거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인 ‘미국인 고용·훈련’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준비에 나선 분야다. 세 번째 조건인 ‘독점 건조기술 라이선

스 제공’은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미 정부가 본국 조선소의 기술 라이선스를 요구하지만 원천기술까지 넘길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네 번째 조건인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은 국내 기자재업체의 동반 진출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미 정치권과 조선업계의 반대는 변수다. 미 의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으로 해외 함정 건조 예산을 제한하려 하고, 미국조선업협회(BSAI)도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kdrak@



metro



“ 부산외대에서 꿈을 키우고 세상을 경험하세요! ”

BU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가장 글로벌한 대학

가장 행복한 대학

가장 혁신적인 대학

최고의 인성·영성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본관 3층 입학관리팀]
T. 051.509.5302~5 F. 051.509.5307 www.bufs.ac.kr

세계 첫 독립개폐 코치도어… “GV90, 미래의 럭셔리 모델”

제네시스 전동화 SUV ‘GV90’

현대자동차그룹이 최신 첨단 기술을 집약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SUV GV90을 공개하고 전동화 시대 럭셔리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제네시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GV90 월드 프리미어’를 열고 GV90 네오론과 GV90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공개된 ‘네오론’ 콘셉트에서 출발한 GV90은 제네시스의 럭셔리 철학과 전동화 기술 역량을 집약한 미래 전략의 상징적인 모델이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GV90은 제네시스가 생각하는 미래 럭셔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기술과 디자인, 고객 경험 전반의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자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기술의 목적을 인간 경험의 향상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혁신의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진정한 럭셔리는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서 시작되며, 아름다움은 그 자유를 완성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첨단 기능을 늘리는



제네시스 GV90.

美서 ‘GV90 월드 프리미어’ 개최
GV90 네오론·GV90 2종 첫 공개
1회 충전시 500km 주행거리 확보
배터리 10%→80% 22분만에 충전
세계 첫 ‘루프 에어백’ 안전성 강화

데 그치지 않고 이동 과정 자체를 고급스러운 경험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GV90은 제네시스 플래그십 전용 ‘eMP(Electric Mobility Prime)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123.5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7인승 기준 1회 충전시 5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350k

W급 급속 충전 시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22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출력은 490kW, 최대 토크는 800Nm에 달한다.

주행 성능도 플래그십에 걸맞게 뛰어난 DNA를 품고 있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듀얼 전장식 차동 제한 장치(e-LSD)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최대 5도까지 조향 가능한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을 적용해 대형 SUV의 안정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높였다. 여기에 두꺼운 차음 유리 와 차체 방음 구조를 적용해 실내 정숙성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제네시스 GV90 네오론 실내.

로 ‘루프 에어백’을 적용했다. 총 12개의 에어백과 실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고 상황에서 탑승객 보호 수준을 높였으며, 배터리에는 셀 간 열연이를 억제하는 열연이 안전 기술(TRP)과 클라우드 기반 사전진단 시스템을 적용했다.

GV90은 차량을 하나의 이동 공간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GV90 네오론에는 세계 최초 독립 개폐형 히든 B 필러 코치 도어인 ‘네오론 아치 게이트’가 적용됐다. 앞·뒤 도어가 마주 보며 열려 탑승 공간을 크게 확장하며, 180도 회전하는 전동식 스위블 시트는 정차 시 실내를 라운지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은 한국적 미학을 전면 내세웠다.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절제된 곡선과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전면부의 윈 페이스 MLA 헤드램프와 24인치 단조 휠을 조합해 웅장하면서도 간결한 존재감을 구현했다.

제네시스는 GV90을 통해 전기차 기술력뿐 아니라 ‘환대(Hospitality)’라는 브랜드 정체성까지 경쟁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정 회장이 제시한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 럭셔리’가 GV90이라는 제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양성윤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1면 ‘DX노조 3000명…’서 계속

동행노조

자사주 1000주 수준 성과급재원 확대 요구

DX의 실적 악화도 부담이다. DX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48조원, 영업이익 8000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출범 이후 처음 분기 적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매출은 100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를 넘었지만 영업이익은 2조 1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조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반도체 실적과 연계한 특별경영성과급이 도입되면서 부문별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집회 이후에는 교섭구도 변화도 변수로 떠올랐다. 초기업노조는 20일 동행노조에 공문을 보내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DX부문 중심의 요구를 별도로 추진하려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초기업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조합원은 5만 3462명으로 동행노조의 약 3만 500명보다 많다. 현 구도가 이어질 경우 교섭장구 단일화 과정에서 동행노조가 DX 요구를 회사와 직접 교섭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 역시 근로조건과 교섭 관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만큼 문턱이 낮지 않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성과급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물이 된다”며 “성과가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등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평택 4나노 ‘풀가동’… 삼성 파운드리, 흑자전환 기대감

일부 신규주문 가격 최대 15% 인상
테슬라서 2나노 공정 물량 확보하고
美 텍사스 테일러 공장 가동률 확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평택 4나노 공정이 풀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공정 가격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나노 선단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일부 파운드리 신규 주문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4나노(SF4) 공정은 중국과 미국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월 대비 10~15%, 대만 고객사는 5~10%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5나노(SF5)

는 10~15%, 8나노 공정은 약 10%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고객사별 가격과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인상 여부와 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웨이퍼 가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가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실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SF4 생산라인은 지난해 말부터 풀가동 상태다. 해당 라인에서는 웨이퍼 등 외부 고객사의 로직 반도체와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사용되는 베이스다이를 생산한다.

중국 고객사의 수요도 강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고객사와 자체 반도체 생산 물량까지 배정해야 해 중국에서 들

어오는 주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SMC의 선단공정 생산능력이 빠듯해진 점도 삼성전자는 고객사를 늘릴 기회로 꼽는다. AI 반도체 수요가 TSMC에 집중되면서 일부 팹리스가 생산처를 다변화하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 기준 점유율은 7%로 TSMC의 70% 이상과 격차가 크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선단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이에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대형 고객사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테슬라와 협력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AI칩 물량은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양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데도 대형 고객사 확보가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1 장비 반입과 양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페이스2 확장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테슬라 등 대규모 물량이 투입되면 초기 가동률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P5 1·2공장을 기존 더블 팹에서 트리플팹으로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최대 490%로 높이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LG엔솔·삼성SDI, 中 공세 대응 배터리 투자 확대

LG엔솔, 상반기 연구개발비 7259억
매출액의 5.1%… 중저가 제품군 보강
삼성SDI, 상반기 8586억… 22% ↑
전고체·소듐이온 배터리 연구 지속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수익성 부담에도 미래 기술 투자를 늘렸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중저가 배터리부터 프리미엄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휴머노이드·로보빌리티용 제품까지 개발하면서 시장별 요구에 맞춰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밀도, 안전성을 높이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인터배터리 2026에서 선보인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삼성SDI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7259억원으로 전년 동기(6204억원) 대비 17.0%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1%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이니켈 양극재와 급속충전 음극재를 통해 고용량·급속 충전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리튬인산철

(LFP)·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로 중저가 제품군을 보강하고 있다. 고온 내구성과 급속충전 성능을 높인 전해질, 난연·고내열 분리막 등 안전성 관련 소재도 개발 중이다. 차세대 기술로는 건식전극과 전고체·바이폴라·소듐이온 전지를 연구하고 있다.

삼성SDI도 연구개발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8586억원으로 전년 동기(7044억원) 대비 21.9%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전년 동기(11.1%)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삼성SDI는 46짜이 원통형 배터리와 고안전성 각형 배터리, LFP 배터리로 전기차

·ESS 제품군을 보강하고 전고체·소듐이온 배터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과 새로운 소재·전극·공정도 개발하고 있다.

두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중국 업체와의 기술·가격 경쟁이 있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저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저가 전기차용 LFP 시장에서는 중국을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국내 기업들은 하이니켈 NCM을 기반으로 한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프리미엄 전기차와 ESS, 휴머노이드 등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그리고 희망은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근의 표정은
소비자 다디짐
소비자 다디짐
저희의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람수이다

패스트트랙 기간 90일로 줄이고 특별감찰관 10년만에 부활

국회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확정
용산공원특별법은 다음주로 연기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홍훈 변호사 추천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야당에 의한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낮추고, 필리버스터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시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로 회부됐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강제 교체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 세 명의 후보 추천안이 의결됨에 따라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도 곧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

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로,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

훈 변호사(54·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했다. 세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간 합의했거나 이견이 작은 법안 70여건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 중엔 기업이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의 처리 안건으로 예상됐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조율 중임을 고려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전 주한미군 주둔시설)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공급물량을 1100호에서 2500호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특별법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도 다음주 처리를 노린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이고, 도시재정비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구윤철 “주택 세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경제부총리)

비거주 1주택자 불이익 최소화
2029년부터 실거주 요건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주택 수 중심의 과세에서 실거주 및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 사유가 된다면, 그 부분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켜서 거주용 주택으로서 정착하는데 뿌리 내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호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세제개편안에 영향 받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를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비거주 하는데 취학, 해외 거주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인정을 해준다. 주택을 보유하기만 해도 (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는 거주용 주택의 정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만 해도 5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다 보유를 하다보니 수도권 풀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부동산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 실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을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주 수요를 높여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급감을 불러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주택 보유 (위주의) 인센티브 스킴(제도)을 거꾸로 주는 것”이라며 “(주택을) 들고만 있어도 혜택을 받으니까 (수도권에 보유를 하기 위해) 그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억원 이하 주택에 세금을 깎아주고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올해 건여들이는 추가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에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공격 주택의 추가 건설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부족하고 더딘 상태”라며 “돈이 없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지나 절차적 문제의 병목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로 편성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에도 청년 분야가 있으니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질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소위원장인 선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재위 위원장을 맡은 최근 3번, 예외 없이 예결소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에게 줬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예결소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다수당의 몫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세제와 재정, 예산과 기금운용을 감시해야 할 예결소위까지 여당이 맡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태홍 기자

李 “불공정과 싸움 중단 없는 민생개혁”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0일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 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 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오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안규백 장관 “北 핵무기 80~120개 추정”

(국방부)

“핵보유 공식적으로 인정 못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 핵무기 수량에 대해 “보통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몇 개 정도 했다고 우리 정부는 평가하느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약간 상이한거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보수집단이나 연구기관에서 대략 57개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한국 국방부장관이 논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거 같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또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북한 핵무기 수량을 재차 물었고, 안 장관은 본인의 80~120개 발언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화전양면(和戰兩面) 작전을 구사하

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고 평가했다. 화전양면은 앞에서는 평화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한다.

안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하느냐는 성일종 의원 질문에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전술핵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아티며이다
은니표깃면이다
소비다디치드
노아구구비스
불안은기대도
비극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빌라 80% 대출 ‘주거 사다리?’… 샀다가 못 팔면 ‘낭패’

내년 출시 ‘청년미래보증자리론’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등 조건
4억 이하 비아파트 LTV 최대 80%
청약시 한 채 보유 ‘무주택’이지만
처분 어렵거나 제 값 못 받을 수도

월세를 내며 아파트 살 수 있는 때를 기다릴 것인가, 저금리 정책대출로 빌라부터 살 것인가.

정부가 내년 1월 ‘청년미래보증자리론’을 출시기로 하면서 청년층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빌라를 사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제 때 팔지 못하면 아파트로 갈아탈 자금과 대출 해탈을 활용하기 어려워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청년미래보증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대상이다. 시가 4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그 외 지역은 최대 80%를 적용한다.

◆ ‘월세 수준’?…서울선 1억원 있어야
정부는 비아파트 평균 월세를 약 80만원으로 보고 월세와 비슷한 부담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억원을 30년 만기·연 3.0%로 가정하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초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스시

2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5813만원이다. 수도권 LTV 70%를 단순 적용하면 자기자금 약 1억744만원이 필요하다. 도심 접근성이 좋거나 정비사업 기대가 있는 빌라는 4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청년층이 빌라·오피스텔을 실제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받아들이는지도 문제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거래와 가격 정보가 적어 향후 매각과 담보가치 평가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주차·안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애 첫 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한 비율은 20대 71.8%, 30대 78.2%였다. 청년가구의 51.0%가 비아파트에 입차

로 살지만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그쳤다.

◆ 청약은 무주택 인정…문제는 매각
빌라를 매입하면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 격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세대당 한 채 보유하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된다. 청년미래보증자리론 역시 산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생애최초 LTV 우대를 다시 적용한다.

결국 생애최초 LTV 우대를 활용해야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보유한 빌라를 처분해야 한다. 거래가 적은 빌라는 매도 시점이 늦어지거나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할 위

험이 있다. 가격 상승이 아파트보다 더디면 다음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 대출이 빌라를 사들이는 문을 열어주더라도 매각이라는 ‘출구’ 문제가 남는 셈이다.

◆ 거래 회복세지만 재개발 쏠림

최근 시장에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만1536건, 거래금액은 4조9346억원으로 각각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비아파트 거래에서 2030세대 비중도 지난 4월 35.4%, 5월 34.4%로 높아졌다.

다만 매수세가 재개발 기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아파트 거래 중 2030세대 비중은 용산구 52.2%, 성동구 48.5%, 영등포구 41.5%, 동작구 41.0% 등 정비사업 기대지

역에서 높았다. 개발 기대가 없는 일반 빌라까지 수요가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

청년미래보증자리론은 월세와 아파트 사이에 비아파트 매입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낮은 주거 품질과 환금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아파트가 자산 형성의 발판이 아니라 다음 주택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제약이 될 수 있다. 청년이 선호하는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고, 비아파트의 관리와 매각 여건도 개선해야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내고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낮은 가격이나 저리 대출로 집을 사는 대신 매각할 때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과 나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시장전략장은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장기 민간임대 금융자원을 확대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지분적립형은 초기 분양대금 부담을 낮춰 청년·저자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월세 주택, 전세로 공급… 수급 불균형 해소

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HUG에 위탁
운용 수익 집주인에 월세지급 방식

정부가 시중에 나온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한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구가 관리·운용하고,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 처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업무를 위탁받은 전월세 안정화기구로 참여한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안정화기구에 맡긴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월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만 신청하는 것으로, 전세금 의무 예치 제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반환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따로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시행의 배경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있다. 전세사기 불안으로 전세 기피가 심해지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기대효과〉

구분	전세 거주 [전세금 2억원]	월세 거주 [1,000만원/74만원]	전세금안심신탁 [전세금 2억원]
임차인	주거비(A)	대출이자 월 53만원	월세 74만원
	보증료(B)	연 34만원	-
	월부담(A+B)	56만원	74만원
임대인	월세(A)	(운용수익에 따라 상이)	월 74만원
	보증료(B)	월 2.5만원(임대사업자)	-
	주택연금(C)	(수령 불가) * 실거주의무	(수령 불가)
	월수령액(A-B+C)	(운용수익에 따라 상이)	74만원
			120만원

※ 주요 가정 1) 서울시 연립·다세대 중위 매매가 대비 전세가 2억원 및 '26.5월 다세대 전월세전환율 4.7% 적용. 2) 전세대출금은 전세금의 80%인 1.6억, 대출금리는 '26.5월 전세자금대출(신규취급) 평균금리 3.97% 기준. 3) 주택연금은 서울 165·55세 부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가정(주택 3억,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임대인도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 등을 떠안는다. 정부는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간 미스매치(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전세금 2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월세 74만원에 빌리는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이용할 경우 월 부담액은 약 53만원으로 21만원 줄어든다.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연 3.97% 금리로 빌린다는 가정이다.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은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마련한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74만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매달 약 73만원의 약

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47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20만원을 수령한다.

사업은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LH 매입임대주택도 올해 500가구를 무주택 청년에게 시범 공급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말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수익률 등을 담은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3자 계약과 계약금 예치를 진행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위험과 임대인의 월세 연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 건전화에 위한 다양한 계약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신길 ‘썸릿 클라비온’ 1순위 경쟁률 66.8대 1

총 83가구 모집에 5543명 신청
전용 49㎡ 183대 1 최고 경쟁률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썸릿 클라비온’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6.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썸릿 클라비온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83가구 모집에 5543명이 신청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49㎡에서 나왔다. 5가구 모집에 915명이 몰려 183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4㎡A도 7가구 모집에 748명이 신청하며 106.86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서 전용 59㎡A가 74대 1, 전용 44㎡B가 70.5대 1로 나타났다. 공급 물량이 30가구로 가장 많았던 전용 59㎡D에는 1720명이 신청하며 7개

주택형이 모두 마감됐다.

썸릿 클라비온은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93가구 모집에 6083명이 신청해 평균 6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에도 5000명이 넘게 몰리며 높은 분양기에도 신길뉴타운 신축 단지를 향한 청약 수요를 증명했다. 분양가는 ▲44㎡ 11억9840만~13억2510만원 ▲49㎡ 13억3410만~14억6600만원 ▲59㎡ 16억6760만~18억6630만원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26만원으로 책정됐다.

썸릿 클라비온은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0 일대 신길뉴타운 10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신한은행, 중·저신용자에 2000만원 대출

‘슈퍼SOL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6.9%

신한은행이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대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외부 신용평점(NICE·KCB) 하위 50%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슈퍼SOL 중금리대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5.5~6.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1.4%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급여이체와 신한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0.9%p를 우대하고,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출시 기념으로 연 0.5%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서민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던 고객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핀파일러(Thin Filer)’도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하이닉스, 차세대 AI 인프라 ‘광 연결’ 기술 확보 나서

CPO 발전방향 관련 논문 작성
차세대 AI 인프라 로드맵 담아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게재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병목을 해소할 차세대 광 연결 기술 확보에 나선다. 연산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려 AI 인프라의 확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연구진과 함께 AI 및 고성능컴퓨팅(HPC)을 위한 차세대 광 인터커넥트 기술인 CPO(Co-Packaged Optics)의 발전 방향을 담은 논문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메모리와 패키징, 광 인터커넥트 기술의 융합 방향과 함께 차세대 AI 인프라 구현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담았다. 연구에는 홍승훈 SK하이닉스 AI 인프라 팀장과 이규상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했다. 일리노이대학교 아바나-삼페인(UIUC), 난양공과대학교(NTU), 매사



차세대 광 인터커넥트(CPO) 기술 연구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왼쪽부터)SK하이닉스 홍승훈 팀장과 버지니아대학교 이규상 교수. /SK하이닉스 뉴스룸

추세츠공과대학교(MIT), 연세대학교 연구진도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CPO는 칩 사이의 데이터를 기존 전기 배선 대신 빛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광 송수신기(TRx)를 프로세서와 같은 패키지 안에 집적하는 기술이다. AI 모델이 대량화되고 수천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HBM을 연결한 대규모 클러스터가 확산하면서 칩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속도가 전체 AI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연산 성능과 데이터 전송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대역폭 장벽’이 새로운 병목으로 지목된다. 논문에 따르면 하드웨어의 연산 성능은 2년마다 약 3배 증가하는 반면 인터커넥트 대역폭은 같은 기간 약 1.4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기존 구리 기반 전기 연결은 데이터 전송 거리와 속도가 증가할수록 신호 감쇠

와 전력 소비가 커지는 한계가 있다며 지 구간을 광신호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칩을 넘어 랙(Rack)과 여러 랙을 묶은 포드(Pod) 단위까지 통신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역폭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차세대 AI 인프라 구현을 위한 CPO의 기술적 목표로 노드당 100Tb/s 이상의 대역폭과 1pJ/bit 미만의 에너지 소비, 10ns 미만의 칩 간 지연시간을 제시했다. 패키징 역시 기존 2D 방식에서 2.5D 인터포저를 거쳐 서로 다른 기능의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3D 이종 집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경로를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광 연결을 메모리 인터페이스까지 확대하는 ‘옵틱스 중심(Optics-Centric)’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광 인터포저를 활용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기존 패키징의 물리적 공간과 배선 제약을 줄이고 데이터 이동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가 구현되면 여러 AI 가속기가 대규모 메모리 자원을 공유하는 ‘메모리 풀(Memory Pool)’을 구성할 수 있다. 특정 가속기 주변에 메모리를 배치하는 기존 방식의 제약을 줄여 AI 모델 규모

가 커지더라도 시스템의 메모리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전력 광소자 집적과 신뢰성 확보, 서로 다른 소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기술 등이 과제로 꼽힌다.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율과 원가, 냉각 등 양산 단계에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규상 교수는 “관련 기술은 이미 실험실을 벗어나 산업화 초입에 들어섰다”며 “저전력 광소자 집적부터 일관성 프로토콜, 신뢰성 기술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결국 핵심은 메모리 소자와 컨트롤러, 광소자, 패키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동 설계(Co-design)’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훈 팀장은 “학계의 전문성과 산업계의 현장 경험이 연결돼 AI 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전선업계, AIDC 수요 증가… 실적 ‘청신호’

美 등 버스덕트 수주 물량 증가
업계, AI 인프라 시장 대응 가속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초고압·해저 케이블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내부 전력공급 제품 수요도 커지고 있다. 대형 버스덕트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전선사들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케이블버스까지 제품군을 넓히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LS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595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717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5266억원을 받기 만에 넘어섰다. 초고압·해저케이블 등 기존 주력 사업의 고부가제품 공급 확대와 미국 AI 데이터센터용 버스덕트 수주 물량의 실적 반영이 성장을 이끌었다.

버스덕트 실적은 LS에코에너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LS에코에너지는 지난 2분기 매출 3503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7% 증가한 수치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투자와 초고층 빌딩 건설이 늘면서 버스덕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버스덕트는 금속 외함 내부에 도체를 배치해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이다. AI 데이터센터의 랙당 전력밀도가 높아지면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버스웨이 시장이 2026년 39억달러에서 2032년 81억달러로 연평균 1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공급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 LSCUS는 지난 5월 미국 빅테크 기업과 5년간 최대 4조원 이상의 버스덕트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생성형 AI 기업과 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확보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체결한 버스덕트 장기 계약 규모는 총 5조원 규모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1월 멕시코 생산법인(LSCMX)의 버스덕트 생산설비 증설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충남 당진공장 내 버스덕트 전용공장 규모를 기존 대비 약 3배로 늘리고 에폭시 절연 버스덕트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했다.

제품군도 확장되고 있다. 가온전선은 지난 6월 대용량 전력전송 시스템인 케이블버스(Cable Bus)의 CSA 북미 안전인증을 아시아 기업 최초로 획득했다. 케이블버스는 금속 외함 안에 다수의 중·저압 케이블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 대용량 전력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에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초고압 케이블뿐 아니라 내부 배전설비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며 “버스덕트와 케이블버스 등 제품군을 확대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선보인다

27일 ‘S26 시리즈’ 새로운 제품 공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6 FE’를 추가한다.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제품군을 넓혀 고원가 환경에서도 시장점유율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27일 오후 9시 ‘삼성 갤럭시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S26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제품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최신 윈

UI(One UI) 등 S26 시리즈의 주요 경험을 담는다고 예고했다.

신제품은 갤럭시 S26 FE가 유력하다. FE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양과 가격대를 낮춘 준프리미엄 제품군이다.

올해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한층 커졌다.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모바일 D램인 LPDDR5X 평균판매가격은 전분기보다 78~83% 뛰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생산능력을 흡수하면서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사들이 생산 목표를 낮추고 제품별 메모리 탑재량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제품일수록 부품값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부담이 크다.

삼성전자는 판매를 줄이기보다 시장점유율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태문 대표이사가 겸 DX부문장은 설명회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와 체질 개선, 내년도 혁신제품 준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고원가 부담이 경쟁사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만큼 판매 확대와 비용 효율화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일렉, 유럽 전력 인프라 시장 ‘정조준’

LS전선과 ‘시그레 2026’ 참가

LS일렉트릭이 LS전선과 함께 유럽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유럽의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변압기부터 케이블까지 아우르는 통합 경쟁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력산업 학술·전시 행사 ‘시그레(CIGRE) 2026’에 LS전선과 공동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LS가 만들어가는 슈퍼 그리드’를 주제로 총 13부스, 113㎡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한다. 전시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솔루션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직류

(DC) 솔루션 등 차세대 전력 기술을 소개한다.

LS전선은 HVDC 해저·지중케이블 시스템과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을 공개한다. 발전원과 송전망, 주요 전력 수요처를 연결하는 케이블 기술을 앞세워 유럽의 장거리 송전망 구축과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LS전선과 LS일렉트릭 양사는 이번 전시 참가를 계기로 북미에서 이어온 전력 인프라 사업 성장세를 유럽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LS 계열사와 시너지를 극대화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위아, 미래형 주차솔루션 시장 공략

고객초청 행사… 실제 운영환경 시연

현대위아가 주차로봇을 앞세워 미래형 주차솔루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대규모 고객 초청 행사를 열고 건설·시공업계와 접점을 넓히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현대위아는 19~20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건설사와 시공사 등 약 800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주차로봇을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실제 주거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 솔루션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위아는 이번 행사에서 차량 입·출차부터 직각·평행·이중 주차, 차량 재배치, 돌발상황 대응까지 실제 운영 환경을 시연했다. 이어 건축 설계 단계에서 고려



현대위아가 지난 19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에서 주차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현대위아

해야 할 인프라 조건과 주차면 배치, 신축·구축 사업지별 적용 방식, 자주식 주차장과의 건축비 비교 등을 소개했다.

특히 주차 공간 효율성은 시장 확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차량 문을 열기 위한 공간을 줄이고 이중·삼중 주차가 가능해 기존 자주식 주차장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수용 차량을 늘릴 수 있다. /성병문 기자 ysm@

GS칼텍스, 정유·유탄유 호조… 바이오·AI 투자 여력 확대

3분기 재고손실에도 정제마진 견조
유탄유 가격 강세로 수익성 뒷받침
美 수출액 두 달간 전년비 266% 증가
GS AI데이터센터 추진 힘 보탬 등

GS칼텍스가 정유·유탄유 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확보한 이익은 바이오·리사이클링 등 신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GS그룹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3분기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감소하겠지만 정제마진과 유탄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는 2분기 정제마진 확대와 유탄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매출은 16조6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GS칼텍스 유탄유 글로벌 물류센터 전경.

/GS칼텍스

익 2조5507억원과 당기순이익 1조8603억원을 기록해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유탄유 부문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유탄유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탄유는 자동차 엔진오일과 산업용 유탄유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액화연료(GTL)시설인 펄GTL의 가동 중단이 있다. 지난 3월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있는

셸과 카타르에너지의 합작 설비인 펄 GTL이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이 시설은 고급 유탄유의 원료인 그룹 3 유탄유의 전 세계 공급량 가운데 약 30%를 차지해온 만큼 가동 중단 이후 글로벌 공급이 줄고 가격도 상승했다.

중동산 유탄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 시장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5~6월 국내 유탄유의 미국 수출액은 3억 6249만달러로 전년 동기(9906만달러)보다 약 266% 증가했다.

정유·유탄유에서 확보한 이익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 투자한 인도네시아 바이오 원료 정제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바이오 선박유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실적 개선은 지주사 GS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유·유탄유 사업에서 확보한 이익이 GS칼텍스의 친환경 신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GS는 강원 동해시에 2028년까지 1.2기 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2.4G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과 전력 공급 역량을 결합해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칼텍스의 실적 개선으로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커진 만큼 정유·유탄유 부문에서 확보한 이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S그룹이 보유한 발전사업 역량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구체화되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팅크웨어, 생활가전·블랙박스 투톱 ‘성장’

생활가전 비중 3년 새 두 배로 늘어
2분기 별도 영업익 12억 흑자 전환
북미 규제에 블랙박스 수요 확대 기대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제조·판매 등 본업을 바탕으로 로봇청소기, 음식물 처리기 등 환경생활가전 제품 판매까지 장착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들어선 계열사를 제외한 티ंक웨어 별도 기준으로 53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특히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올해 실적 전망이 밝아졌다.

20일 티ंक웨어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반기 현재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환경생활가전이 65%, 블랙박스가 32.4%를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 나머지 2.6%가 내비게이션 등 지도 부문 사업이다.

팅크웨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로봇청

소기 ‘로보락’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하며 몸집을 크게 부풀렸다. 로보락의 인기에 힘입어 총 5366억원의 매출을 거둔 지난해의 경우 환경생활가전 부문에서만 34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블랙박스 부문(1704억원)에 비해 두 배 많은 수치다.

로보락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티ंक웨어 전체 매출에서 환경생활가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3.2%(2022년)→49.9%(2023년)→64.8%(2024년)→64.6%(2025년)로 점점 늘고 있다. 이 기간 연결 기준 매출도 3367억원(2022년)에서 5366억원(2025년)으로 크게 뛰었다.

팅크웨어는 로봇청소기 외에도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물걸레청소기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인 로보락은 A/S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티ंक웨어는 반기 연결 기

준으로 13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직전 분기 메모리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저하됐지만 글로벌 공급 단가 조정과 물량 확대 효과가 반영되면서 별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최근 북미 시장 내 중국산 제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차 공급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티ंक웨어 블랙박스가 관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티ंक웨어는 블랙박스를 통해 축적한 주행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인식과 객체탐지 등 자체 비전(Vision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회사 측은 이 같은 Vision AI 역량을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와 완성차 OEM,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한 IP 수익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20일 전북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서 (왼쪽 5번째부터)박춘원 전북은행장,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이원택 전북도지사, 노용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기부

1000억 규모 ‘1호 지역성장펀드’ 출범

전북 시작으로 지역 벤처투자 본격화
모태펀드 600억 등 17개 기관 참여

제1호 ‘지역성장펀드’가 전북에서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되는 해당 펀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전북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고 전북 벤처모태펀드 출범을 알렸다.

지방투자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는 지

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 및 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다. 정부는 비수도권 14개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에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전남·광주) ▲전북 등 5곳을 선발했다. 이 중 가장 먼저 결성된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의 600억원을 포함해 전북, 익산시, 정읍시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승호 기자

전기차 보조금 수요 엇박자… 승용 ‘남고’ 화물 ‘바닥’

160곳 중 95곳 화물 선정률 더 높아
소상공인·농업인 구매 차질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중 승용차 물량은 남아 있지만 화물차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곳이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과 화물에 나눠 배정된 물량이 실제 수요와 엇갈리면서 전기트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승용차 선정잔여는 남아 있지만 화물차 선정잔여가 0인 곳은 17곳이었다.

수원은 승용차 선정잔여가 651대인 반면 화물차는 0대였다. 구리도 승용 218대·화물 0대, 광명은 120대·0대, 태안은 117대·0대로 나타났다. 칠곡 역시 승용차는 103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화물차는 남은 물량이 없었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이미지.

/현대차

화물차 물량의 소진 수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곳도 적지 않았다. 전국 160개 지자체의 공고대수와 선정대수를 차종별로 비교한 결과 95곳(59.4%)에서 전기화물차의 공고대수 대비 선정 비율이 승용차보다 높았다. 화물차 선정잔여가 0으로 표시된 지자체도 75곳에 달했다.

다만 선정잔여는 실제 신청 가능한 차량 대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자체마다 추가 공고나 접수 마감 시점이 다른 만큼 개별 지역의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승용과 화물 등 차종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승용과 화물로 구분해 편성했고, 지자체도 이를 토대로 차종별 보급 물량을 공고한다.

문제는 실제 수요가 당초 배정과 달라질 때다. 승용 물량이 남은 상황에서 화물 물량이 먼저 소진되더라도 남은 물량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한쪽은 물량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지원이 끊기는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택배 등 사업용 수요와 밀접하다. 정부도 소형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택배용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서 화물차 물량이 먼저 소진될 경우 차량 구매나 교체 시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K-뷰티 수출거점에 경주·제주 선정

중기부, 사업비 30억 투입
체험관·바이어 상담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K-뷰티 수출거점으로 경북 경주와 제주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K-뷰티 진출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중기부는 ‘2026년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 지원 대상지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과 민간 인프라 및 전문성을 합쳐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국내 지역을 K-뷰티 글로벌 진출 기지로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 핵심 산업 분야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중인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산 3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역을 선정했다. 경주와 제주 K-뷰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고품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연 자원,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연구·생산 시설, 홍보·마케팅 공간을 보유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에는 수출거점 인프라 구축, 팝업스토어·체험관 운영, 수출·투자 바이어 상담 진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전문인력,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삼재운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수출거점이 K-뷰티의 글로벌 진출 전략 다각화와 주변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OTT에 밀린 유료방송 살리자”… 방미통위, 민관협의체 가동

업계 애로사항·규제 개선방안 논의
요금·채널 운용 등 규제 완화 요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시행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IPTV와 종합 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규제 창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 가운데 최근 정책적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유료 방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유료 방송 업계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간 유료방송 정책은 사업 영역과 규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썬GPT로 생성한 이미지

제 사안에 따라 여러 부처·기관의 논의가 얹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IPTV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SO·위성 등은 방통위가 담당하며 정책 창구가 분산돼 있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미통위가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정책과 규제를 아우르는 구조가 갖춰지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처 간 이견이 줄고 시장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유료방송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OTT 중심의 경쟁 환경에 걸맞는 제도적 개선이다. 방송은 규제 산업에 속하는 반면 OTT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돼 자유로운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스포츠 단독 중계는 실시간 시청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광고형 요금제 도입은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특히 유료방송은 요금 인상이나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용 요금 등에 대해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SO 사업자들은 최근 10년간 영업 이익이 97% 급감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공익 채널을 편성해야 하는 등 채널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 방송미디어발전 기금과 콘텐츠 사용료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 등이 과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논의는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OTT 확산 및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료방송 정책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형평성을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팀네이버 디지털트윈, 사우디 플랫폼 채택

사업 확대·현지 맞춤형 기술 고도화
지자체 간 데이터·플랫폼 경험 공유

팀네이버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국가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됐다. 2023년 현지 사업 수주 이후 3년 만에 주요 도시를 넘어 사우디 전역으로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팀네이버는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정부청(DGA)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용 플랫폼으로 공식 승인을 받아 ‘국가 디지털트윈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사우디 자치행정주정부 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팀네이버 플랫폼을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각 지자체가 디지털트윈 사업을 추진할 때 팀네이버 플랫폼을 우선 검토해 지방정부 간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기술 표준과 방법론을 통일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지방정부가



지난해 5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공사와 전략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 설립 계약을 맺었다.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과 디지털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사우디 정부는 팀네이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도시 운영, 자산·인프라 관리, 도시 안전 등 지방 행정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데이터와 플랫폼 운용 경험도 공유한다.

팀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사우디 자치행정주정부로부터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25년 메카·메디나·제다 등 3개 도시의 구축을 완료했다. 구축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1배가 넘는 6800㎢로, 92만동 이상의 건물을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했다.

팀네이버는 이번 국가 표준 플랫폼 채택을 계기로 사우디 정부 및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한다. 대규모 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기술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AI 스타트업 16곳과 AX 사업 협력

피지컬 AI·보안 등 7개 분야 협업

KT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K-PATH 2026’ 참여 스타트업 16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KT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파트너로 육성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게 목표다.

지난 6월 참여 기업을 모집해 193개 공모 기업 가운데 1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기술 경쟁력,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협업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발 분야는 ▲엔터프라이즈 AI·에이전트 ▲피지컬 AI·로보틱스 ▲AI용 데이터 ▲AI 트러스트·보안 ▲AI 인프라·모델 ▲산업 특화 버티컬 AI ▲AI ESG 등 7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사이오니아아이(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알고리즘랩스(산업 적용형 AI 에이전트), 스카이인텔리전스(로봇 학습용 합성데이터 기술), 프라이빗에이아이(AI 가드레일·프라이버시

기술) 등이 포함됐다. 텐(GPU 자원 관리·AI 인프라 최적화), 씨플랫에이아이(다국어 AI 상담사 솔루션)도 선정됐다.

이들은 KT 인공지능 전환 사업과 연계한 기술 검증과 각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KT 사업 부서와 연결해 고객과 관련한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빅윈’ 과제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검토 과제는 ▲온톨로지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검증 ▲재난·안전·소방·안보 분야 AI 디지털트윈 공동 실증 ▲KT 제조 고객망과 연계한 스마트팩토리·AI 기반 제조 혁신 ▲고령층 생활 교육과 주문·결제를 지원하는 AI 키오스크 공동 개발 등이다.

KT는 이번 프로그램을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와 스타트업 간 성과 사례는 오는 10월 열리는 ‘K-PATH 2026’에서 공개하고 내년에는 연구개발(R&D) 과제를 포함한 2차 협력을 추진한다.

/조민선 기자

LGU+, AI로 요양원·레지던스 건물 관리

‘AI빌딩넷 바이 익시’ 출시

LG유플러스가 요양원, 레지던스 등 건물 관리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20일 통합 건물 관리 솔루션 ‘AI빌딩넷 바이 익시(by ix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AI빌딩넷 바이 익시는 센서, 폐쇄회로 TV(CCTV), 로봇 등 건물 내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시설 운영 효율화와 이용자 경험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향후 시니어 케어시설부터 레지던스, 오피스, 상업시설 등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우선 시니어 케어시설에 전용 솔루션 ‘AI빌딩넷 바이 익시-웰니스 노트’를 선보인다. 건강 모니터링 센서 등 돌봄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AI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신하라이프케어 프리미엄 요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빌딩넷 by ixi-웰니스 노트’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가 실시간 분석해 입주자 건강 상태와 이상 징후를 파악하도록 지원한다. 입주자별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주자별 업무 배정과 완료 여부, 인수인계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NHN KCP-라인 넥스트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

종합결제기업 NHN KCP가 라인 넥스트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실제 사용처 확대에 나선다.

NHN KCP는 글로벌 웹3 플랫폼 기업 라인 넥스트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체결된 이번 협약은 NHN KCP의 국내 가맹점 및 결제 인프라와 라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지갑 ‘유니파이’ 기술을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향후 NHN KCP가 유통에 참여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라인 넥스트의 글로벌 지갑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라인 넥스트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유니파이페이’ 기술을 NHN KCP 결제창에 연동한다.

/최빛나 기자

SKT, 내년 3G 종료… LTE·5G 전환 지원

기존 결합 할인·장기고객 혜택 유지

SK텔레콤이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LTE·5G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서비스를 점차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3G 서비스 종료 추진 배경은 3G 가입자 및 트래픽 감소, 단말·장비 노후화,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 등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내 주요 이동 통신사들도 이용자 감소와 주파수 활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상은 3G 단말과 HD 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이다. HD 보이스 미지원 단말은 3G 망으로 음성 통화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동시에 LTE·5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

그램도 마련했다. 기존 결합 할인과 장기 고객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뉴실버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후 요금제 변경이 없으면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 이동이나 기존 3G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은 해지지원금 4만원을 지급한다. 서비스 전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다.

SK텔레콤은 3G 가입자에게 점진적인 서비스 종료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MMS), T월드 홈페이지 및 앱, 우편·이메일 요금 안내서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고객에게는 별도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K-반도체 투톱, 주주환원 팔 걷어… 저평가 국면 해소 기대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소각
향후 환원규모 200조 이상 전망

삼성전자 환원방안 조만간 공개
배당 확대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에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환원을 앞세워 반등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정된 데 이어 삼성전자도 100조원대 환원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내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만큼 주주환원이 실제 재평가로 이어지려면 AI 투자와 메모리 호황의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보통주 2407만주를 40조43억원에 장내 매입해 전망 소각하기로 했다. 지난달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당시 발행한 신주 1779만주보다 많은 물량으로, 지분 희석 우려도 덜게 됐다.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주주환원 기준은 기존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높였으며 추가 환원 방안은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381.41포인트(5.89%) 오른 6852.58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6.43포인트(1.99%) 상승한 840.89 마감했다.

/뉴시스

증권가는 이번 결정을 AI 메모리 호황에서 확보한 현금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했다.

향후 환원 규모가 200조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2025~2027년 FCF를 약 491조원으로 추산했다. 회사가 제시한 최소 환원율 50%를 적용하면 정책 기간 총주주환원 규모는 245조원 이상이다.

SK하이닉스의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

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규모와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특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와 경영진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여력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2024~2026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환원할 경우 특별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올해 주주환원 여력

을 100조원 중반대로 전망했다.

환원 방식은 자사주 소각보다 현금배당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삼성생명 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아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상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배당 확대가 삼성전자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지수 반등을 주도하려면 고성장주뿐 아니라 고배당주로도 확실한 이미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주환원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금리와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을 넘어야 한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3%까지 오르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금리 불안 속에 지난 18~19일 이틀간 9.84% 하락했다. 20일 9.70% 반등했지만 급락 전인 지난 14일 종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동원 KB증권 본부장은 최근 주가 하락을 펀더멘털 훼손보다 금리 불안에 따른 과민 반응으로 진단했다.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의 AI

투자금 회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짧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리 상승이 곧바로 AI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적 전망의 변화도 변수다.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달 말 549조913억원에서 이달 18일 544조6704억원으로 낮아졌다. SK하이닉스 전망치도 400조원을 밑도는 391조8203억원으로 내려왔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높아지던 실적 눈높이가 처음으로 낮아진 것이다.

다만 아직 업황 하락을 뒷받침할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이후 D램익스체인지 반도체 현물가격지수(DXI)와 DDR5 현물가격은 각각 3.6%, 3.5% 상승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은 주가수익비율(PER)은 반도체 이익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낮아졌음을 시사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훼손 조짐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4배 PER이 과도한 할인인지는 주당순이익(EPS) 하향 조정이 주가에 반영된 수준까지 확인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 PE 투자건수 급감… AI·에너지 중심 대형 거래

(사모펀드)

상반기 투자 69건… 21분기 만에 최저
우량자산 중심으로 선별 투자 이어져

올해 상반기 국내 사모펀드(PE) 투자가 조달금리 상승과 인수합병(M&A) 시장 정체 등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 건수가 21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대형 거래가 이어지면서 투자 규모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삼정KPMG가 20일 발간한 '글로벌 PE 투자 동향과 2026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PE 투자 규모는 56억달러, 투자 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에 따른 에너지 리스크, 조달금리 상승, 국내 M&A 시장 정체, 국민연금의 신규 국내 PE 출자 중단 등이 투자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 충분한 자

본력을 갖춘 글로벌 PE를 중심으로 국내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다.

삼정KPMG는 하반기 국민연금과 연기금·공제회 등 주요 출자자(LP)의 PEF 출자가 예정된 만큼 국내 PE 투자 활동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고숙련 정밀 제조업과 K-뷰티·K-컬처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은 투자 건수보다 거래 규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뚜렷했다. 상반기 글로벌 PE 투자액은 1조달러, 투자 건수는 9294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투자 실적인 2조3000억달러, 2만1646건과 비교하면 투자 속도는 다소 둔화했지만 유입된 자본은 과거 평균 대비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2개월 누적 투자액은 2조4000억달러에서 2조3000억달러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투자 건수는 2만1060건에서 2만105건으로 감소하며 2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범위를 넓히기보다 성장성과 투자 확신이 높은 자산을 골라 대규모 자금을 집행한 영향이다.

자금은 AI와 에너지 인프라, 산업 제조 분야에 집중됐다. 산업별 투자액은 기술·미디어·통신(TMT)이 354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산업 제조가 1540억달러, 에너지·천연자원이 1492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에너지·천연자원 부문은 연말까지 사상 최대 투자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테크 전환에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더해지면서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 투자처로 부상했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프트웨어 투자는 정체된 반면 센서·로보틱스·반도체 등 제조업과 연계된 하드웨어 분야로 자금이 이동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5791억달러로 글로벌 투자를 주도했고 유럽·중동·아프리카(EMA)가 3432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상

반기 최대 거래는 KKR의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 출범과 관련한 100억달러 규모 투자였다. 유럽에서는 EQT의 영국 인터텍 그룹 비상장화 등 대형 거래가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액은 679억달러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회수 시장에서도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한 선별 기조가 나타났다. 상반기 글로벌 PE 회수 건수는 1315건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었지만 회수액은 5700억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PE 운용사들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파이어 세일'을 피하고 원하는 기업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회수에 나선 결과다. 회수가 지연되면서 PE가 보유한 미회수 포트폴리오 기업도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김진원 삼정KPMG 부대표는 "하반기 글로벌 PE 시장은 무리한 양적 팽창보다 에너지와 AI 인프라, 산업 제조 기반 하드웨어 등 투자 확신이 높은 핵심 분야의 대형 거래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연장

금감원 금융시스템 안정성 도모

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을 내용 변경 없이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시행되어 오고 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CCP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부도 위험 및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증거금)를 사전에 주고받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담보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가격 변동에 따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시증거금 대상은 매년 3~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전체 대상은 143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가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54개사로 가장 많고, 은행 35개사, 기타 금융사 30개사, 보험사 24개사 순이다.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동양생명, 현대해상 등 7개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으며,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대상은 명목잔액 평균이 3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전년보다 2개사 늘어난 총 165개사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63개사, 은행 39개사, 기타 금융사 33개사, 보험사 30개사로 집계됐다. 중국광대은행, ABL생명, SBI저축은행 등 4개사가 신규로 적용되며, 제외 기관은 개시증거금과 동일하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AI 기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 구축

감시업무에 생성형 AI·머신러닝 도입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부터 심층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한다. 24시간 거래되는 수천개 가상자산을 한정된 인력으로 감시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머신러닝을 시장감시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

금감원은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접목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시장 감시 체계를 내부 인력으로 직접 설계·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감시 체계는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시세조종 의심 종목을 초기에 포착한다. 특정 시간대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매도하는 이른바 '경주마' 방식과 입출금이 제한된 종목의 가

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방식 등 초단기 시세조종 유형을 구분해 적출한다.

생성형 AI는 해당 종목의 공시사항과 뉴스 등을 함께 분석해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한 원인을 파악한다.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나타나거나 뚜렷한 근거 없이 가격이 급등한 경우 금감원이 거래소에서 매매자료를 받아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다.

가장·통정매매 탐지에는 벤포드 법칙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종목별 거래량 분포와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해 정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종목과 구간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석유화학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공정위, 5년간 내수가격 인상 제한

롯데·HD현대 생산시설 통합 추진
LDPE·EVA 점유율 합계 75% 넘어
수출가격 변동률 이하로 판매가 관리
전 품목 국내 수요자 공급 의무화
계열사 간 가격·원가정보 공유 금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물꼬를 뒀다. 다만, 경쟁당국은 과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제품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 석화 흡수합병 및 롯데케미칼의 HD현대 케미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조 산비닐(EV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합으로 대산 산단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되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50%씩 보유해 공동 지배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 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점유율 합계가 75%를 초과하는 등 과점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기존 시장가 대비 약 10%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던 신규 사업자(HD현대케미칼)의 경쟁 압력이 소실되면서 가격 인상이나 저수의 품목 생산 중단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로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 심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게 하는 ‘구조적 조치’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시장 폐해를 막을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독 및 협조 효과가 있지만 결합을 금지할 만큼의 구조적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행태적 조치를 촘촘히 설계해 5년간 부과하면 본 건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내수 LDPE·EVA 가격 변동률은 ‘수출가격 변동률’ 이하로 제한된다. 시정조치 기간인 5년은 사업재편 기간 약 3년과 시장 과점 시차, 글로벌 여건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5년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아울러 결합 당사회사들이 생산 중인 모든 그레이드 제품을 국내 수요자 요청 시 지속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열

사 간 가격·원가·수량 등 경쟁 민감 정보 공유를 원천 금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직했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할 경우 1년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인적 장벽도 세웠다.

이번 심사는 법무부 차원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 접수 이후 정식 법정 심사 기간 내 신속하게 처리됐다. 전 국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산업 구조 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중소 수요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공정위와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접수된 ‘여수 1호’ 등 후속 석유화학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과점 및 담합 우려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길 확대

기후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손질

폐배터리와 친환경차 모터, 풍력발전기 부품 등 ‘미래 폐자원’을 국내 핵심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다. 정부는 다양한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이 원료물질을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쓰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해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자원순환을 유도한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폐배터리의 별도 통계 관리용 분류코드도 신설된다. 재활용 용도 역시 단순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장된다.

폐배터리 운송과 보관 안전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에만 적용되던 운송·보관 기준이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농업·건설기계 및 전기저장설비 폐배터리까지 확대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의 경우 밀폐형 운송용기 사용과 절연·완충 조치를 의무화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홍콩서 K-푸드 수출길 넓혔다

국제식품박람회서 2900만 弗 상당
복숭아 등 신선농산물 집중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 업체들과 홍콩을 찾아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K-푸드를 선보였다. 특히, 최근 검역을 마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행사장에 ‘K-프레시존’을 별도로 조성했다.

aT는 지난 13~15일 기간 홍콩에서 열린 ‘2026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2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매년 개최하는 이 박람회는 홍콩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무역박람회다. 올해는 30여 개국에서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또 바이어 2만 명과 방문객 52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신선농산물 홍보에 비중을 크게 뒀다. K-프레시존을 별도로 구성해 포도·복숭아·토마토 등 다채로운 과채류를 선보였다.

최근 중국 본토와의 검역 협상이 타결된 한국산 단감은 수출통합조직을 주축으로 특별관을 운영했다. 국내 단감 수출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K-단감이 수출시장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중화권 바이어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K-뷰티구역’에서는 마시는 스킨부스터·애플사이다 비니거·콜라겐 젤리 등 웰니스와 이너뷰티를 지향하는 제품들을 배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컨테이너선 첫 북동항로 시범운항

해수부, 북극 신무역로 개척 본격화
부산 출발해 유럽 3개 항만 기항
운항비·연료소모 등 사업성 점검

컨테이너선의 ‘북동항로’ 시범운항이 국내 해운업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신(新)무역로 선점’이라는 국정과제의 한 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2일 관련 운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투입된다. 이 선박은 부산을 출발해 북동항로를 거쳐 기착지인 영국 펠릭스토후,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거친다. 이후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와 함께 올해 8~9월 중 출항을 목표로 북동항로 시범운항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는 공모를 통해 팬스타라인닷컴을 시범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과 화물 확보, 선원 구성, 보험 가입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도 준비했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둔 팬스타아크로호

/뉴시스

다. 또 운항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및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위해 관련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팬스타아크로호는 8월22일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해 8월30일(현지시간) 북극해역에 진입한다. 이어 9월7일 전후로 북극해역을 통과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유럽행을 기준으로 북극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8일이다. 북극해 운항 거리는 약 6400km로 추산된다.

이후 9월9일 영국 펠릭스토후항에 입항하고, 9월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9월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기항한 뒤 10월5일께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전체 예상 운항기간은 총 45일이다.

선박에는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화물 약 737TEU와 공(空)컨테이너 100개 등 총 837TEU가 선적된다. 실제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북동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활용가능성과 화주·물류기업의 이용 수요를 타진하게 된다.

팬스타아크로호에 승선하는 선장과 항해사는 모두 극지해역 운항을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극지운항 경력이 있는 아라온호(국내 유일 쇄빙연구선)의 현 항해사가 1등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북동항로의 운항거리와 소요기간, 연료소모량, 운항비용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북동항로 시범운항과 함께 북서항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최근 울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극지운항 경험에 풍부한 네덜란드 해운기업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극지항행 정보와 운항경험을 공유하고, 북서항로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을 찾은 홍콩 정부 관료들.

/aT

장애인 노동자 마음돌봄 안내서 발간

고용개발원, ‘내 마음건강 지키기’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직장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우울·분노 등 마음건강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 ‘내 마음건강 지키기’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고용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보다 쉬운 글과 그림으로 개편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제작에 참여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안내서에는 불안과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주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법이 담겼다. 일상에서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방법과 관련 전문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마음건강 문제별 정보형·사례형 동영상도 QR코드로 연결해 책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영상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휴머니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문의 : 02-6743-3303

용산공원 주택 해법 못 찾은 서울시·국토부… 다음주 재논의

주택 공급 문제 논의했지만 입장차
김윤덕 장관 “청년 등 공급 필요”
오세훈 시장 “주변 국유지 협의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면담한 뒤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것은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과 여기에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

차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다.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등도 활용 가능한 부지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며칠 전 권영세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던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

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삶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회동 후 양측의 견해차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대화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속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대학, AX 필요성 공감에도 재정난 ‘발목’

대교협, 192개 대학 총장 대상 설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요구

대학 10곳 중 9곳은 인공지능 전환(AI)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 수준 이상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X 투자 비용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II): AX 시대의 고등교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4개교가 응답했다. 응답률은 75.0%다.

◆AX 전환 필요성 커졌지만…절반 이상 “재원 부족 등으로 계획 못 세워”

조사 결과 향후 3년 내 AX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대학은 41.0%(59개교)에 그쳤다. 반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이나 내부 검토 등의 이유로 아직 계획 수립·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대학은 55.5%(80개교)였다.

특히 AX 전환 계획이 없다고 답한 2개교를 제외한 142개교 가운데 투자 비용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89.4%(127개교)는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AX 전환 추진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국공립대가 65.6%, 소규모 대학이 63.6%로 높았다.

대학 총장들은 AI 인프라·플랫폼 구축과 AI 기반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3월 개최한 2026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교협

자의 AI 역량 강화 등 AX 환경 구축 6개 분야 모두에서 93.7% 이상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AI 인프라·플랫폼 구축’(5점 만점에 4.29점)이었다.

◆대학 총장 최대 관심사는 ‘재정’…AX 재원도 정부 지원 확대 요구

총장들의 전반적인 관심사에서도 재정 문제가 두드러졌다. ‘정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이 79.9%(115개교)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60.4%(87개교)로 뒤를 이었다.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관심도는 전년보다 5.6%포인트 상승해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AX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부 전입금 확대’가 289점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177점), ‘고등교육세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 재원 구조 마련’(171점)이 뒤를 이었다.

대학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총장의 88.2%(127개교)는

AX 시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간 공동 개발·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효과적인 공동 개발 분야로는 ‘교육 특화 AI 시스템’이 230점으로 가장 높았고 AI 기반 학습관리·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 체계(176점), 공동 컴퓨팅 인프라(120점) 순이었다.

◆대학 88.2% “AI 공동 개발·공유 필요”…현장 변화보다 대응은 뒤처져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AI 변화 속도에 비해 실제 대응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든 조사 항목에서 ‘변화 체감’ 수준이 ‘대응 수준’을 못쫓았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운영 재정과 AI·첨단 분야 교원 확보 및 산업현장 전문인력 활용에서 격차가 컸다.

인재 양성 방향으로는 ‘AI를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 인재’(233점)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반면 기초·순수학문 학과의 경우 36.8%(53개교)가 학생 수요 감소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AI 융합교육 확대와 기초학문 유지 사이의 균형도 과제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동문 기업인 이름 딴 강의실 조성

발전기금 기부자 현판식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 기부한 동문 기업인 3명의 이름을 신축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강의실에 붙였다.

인하대는 20일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2

층 강의실 3곳에서 기부자 명의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의실에는 한복우(썬제너셈 회장, 김중현(썬유니테스트 회장, 황정현(썬아이닉스 대표)의 이름이 각각 붙었다. 세 사람은 모두 인하대 동문으로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현진 기자

한 회장은 이번에 5000만원을 기부해 누적 기부액이 1억1100만원이 됐다. 김 회장은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발전기금 등으로 1억1300만원, 황 대표는 1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기부금은 신축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내 첨단 반도체 교육 강의실 조성에 활용됐다. 해당 공간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 교육과 실습에 사용된다.

서울교육청, 자치구와 유보통합 협력 확대

강북·관악 유치원·어린이집 안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자치구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안전 지원과 영유아 인프라 데이터 구축, 합동 모니터링 등 협력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강북구·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설안전관리관을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경미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5월에는 28개 기관에 98건, 6월에는 46개 기관에 149건을 지원했다. 이용기관 만족도는 5월 97.3%, 6월 100%로 평균 98.7%를 기록했다.

강동·동작·영등포구와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 인구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현황, 생활권 정보 등을 GIS 기반 정책지도에 구현해 지역별 시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공동주택 입주와 재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 동작구는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관련 시설 접근성, 영등포구는 맞벌이·외국인 아동 비율을 고려한 연장·시간제 보육과 다문화가정 서비스 수요 등을 분석한다.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어린이집을 함께 방문하는 합동 모니터링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교육지원청의 사업 모니터링과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한 번에 실시해 어린이집의 중복 방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협업 사례는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연수에서 교육청·지자체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소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해 202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상원,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31개 부패방지 과제 추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경상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증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차단·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인증 범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및 교육, 경기지역화폐 홍보 등 경상원의 주요 사업 전반이 포함됐다.

경상원은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4월 부패방지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했다. 또 내부 청렴담당관을 활용한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과 자체 내부심사를 진행하고 1·2차 외부 심사를 거쳐 부패방지 정책과



경상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원

절차, 통제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체계화했다.

그 결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31개 부패방지 세부 추진과제 수립과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앞으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비연소 제품 중심 체질전환… ‘담배연기 없는 미래’ 가속화

한국필립모리스 간담회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소개
핵심 가치로 신뢰·책임 내세워
“흡연자에게 다양한 대안 제공”

한국필립모리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기 신제품 ‘비브(VEEV)’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담배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라는 자사의 비전 가속화에 나섰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에 이어 액상형 카테고리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성인 흡연자에게 다양한 비연소 제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멀티 카테고리’ 비전과 신제품 ‘비브 인프라임(VEEV inPRIME)’의 기술력, 책임 있는 시장 접근 전략을 발표했다.

PMI는 2030년까지 전체 순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비연소 제품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8년 이후 비연소 분야 R&D에만 160억 달러(약 22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현재 비연소 제품 연구 인력은 1600여 명으로 전체 R&D 예산의 99.7%가 비연소 분야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향후 시장 전략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주한 대외 정책 및 홍보 부사장, 김태형 소비자 경험 총괄 상무, 김기백 뉴 프로덕트 시니어 매니저, 김재현 과학 커뮤니케이션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집중돼 있다. 2026년 2분기 기준 비연소 제품은 전 세계 109개 시장에 진출했으며, 전체 순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까지 확대됐다.

김주한 PMI 대외정책·과학 담당 이사는 “PMI의 지향점은 명확하게 비연소 제품을 향해 있다”며 “경쟁사가 일반 담배를 판매하는 시장 구조에서 당사만 즉시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성인 흡연자들이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이코스와 비브 등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멀티 카테고리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브는 유럽 폐쇄형 포드 시장에서 1위

브랜드로, 독일·루마니아·그리스 등 주요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 액상형 담배 시장의 유사·합성 니코틴 유통과 품질 기준 미비, 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신뢰’와 ‘책임’을 제품 출시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김 이사는 정부의 액상형 담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합성·유사 니코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책을 지지한다”며 “비브는 검증된 원료와 폐쇄형 시스템이라는 자체 기준을 적용한 만큼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한국필립모리스

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전용 포드 ‘비비(VEEBI)’에는 스위스 뇌사텔 R&D 센터의 검증 기준을 충족한 천연 니코틴과 식품 등급 향료가 사용됐다. ‘비브 인프라임’은 알루미늄 외관과 마그네틱 결합 방식을 적용했으며 약 40분 만에 완전 충전할 수 있다.

PMI의 가열 기술인 ‘어드밴스베이프 인덕션 시스템’도 적용했다. 전자기장을 활용해 액상과 가열체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풍미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액상 소진 시 자동으로 가열을 멈추는 ‘액상 부족 감지 시스템’과 흡입 시 진동으로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리스폰시브 드로우’ 기능도 탑재했다.

전용 포드 ‘비비 인프라임’은 2ml 기준 약 1400회 흡입이 가능하다. 기존 2ml 포드 제품의 800~1000회 수준보다 흡입 효율을 높였다. 국내 성인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해 가든 웨이브, 레드 웨이브, 블루 후레쉬, 썬 웨이브, 퍼플 웨이브 등 5종으로 출시하며 향후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시 일정이 당초 6월에서 8월로 조정된 데 대해 김태형 소비자경험팀 이사는 “제품의 기술적 이상이나 계획 변경은 아니었다”며 “책임감 있는 론칭을 위해 유통망과 포시 사항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이코스와의 고객층 간섭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 타깃층이 중복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성인 흡연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비연소 영역에서 선택지를 넓히고 비연소 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비브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아이코스 공식 직영 매장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전국 1만 4000여 개 편의점과 주요 유통 채널에서 본격 판매된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프리미엄 장류 시장 ‘정조준’

프리미엄 라인업 ‘해찬들 옛장’ 출시
전통 제조방식에 자체 발효기술 접목

CJ제일제당이 전통 장 제조 방식에 자체 발효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장류를 선보인다. 장류에서도 깊은 감칠맛과 풍미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해찬들의 프리미엄 라인업 ‘해찬들 옛장’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전통 장맛을 현대적인 발효기술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해찬들 옛장 된장’과 ‘해찬들 옛장 고추장’으로 구성됐다.

‘해찬들 옛장 된장’은 CJ제일제당의 균주로 만든 사각매주를 발효한 뒤 콩알매주와 혼합해 한 차례 더 숙성하는 ‘겹발



해찬들 옛장 된장과 고추장

효’ 공정을 적용했다. 일반 된장보다 숙성도를 높여 깊은 구수함과 감칠맛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밀을 사용하지 않고 콩만으로 만들어 된장 본연의 맛을 살린 것도 특징이다.

고추장은 쌀과 콩을 동시에 발효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태양초 고춧가루와 쌀조청을 사용해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고 간장과 된장을 더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감칠맛을 강화했다.

CJ제일제당은 별도의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요리의 풍미를 높일 수 있는 장류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류의 원료와 발효 방식, 숙성 기간 등에 따른 맛의 차별화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해찬들 옛장은 전통 장맛의 깊이를 현대 발효기술로 구현한 제품”이라며 “차별화된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장류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K리그X산리오캐릭터즈’ 태닝 에디션 7종 출시

세븐일레븐은 20일 ‘K리그X산리오캐릭터즈’ 태닝 에디션 뽕·디저트·교통카드 등 신상품 7종을 출시했다. 오는 27일에는 스낵과 젤리 등 3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협업 상품에는 총 73종으로 구성된 ‘뽕 담뽕’을 동봉한다. K리그1 12개 구단별 유니폼·후드티·폴라로이드 디자인 3종씩 총 36종과 K리그2 17개 구단별 유니폼·후드티 디자인 2종씩 총 34종, K리그 관련 디자인 3종으로 구성됐다. 헬로키티, 시나모롤, 한교동 등 산리오캐릭터즈가 각 구단의 유니폼과 후드티를 입은 모습을 담았다.

/김서현 기자

농심, 해외 소비자에 신라면 매운맛 알린다

에스파 앞세워 글로벌 마케팅 강화

농심이 글로벌 앰배서더인 에스파(aespa)를 앞세워 신라면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농심은 20일부터 에스파와 함께 신라면 2차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음악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신라면 브랜드를 알린 데 이어 이번에는 요리·쇼핑·여행 등 일상 속 신라면 소비 경험을 콘텐츠로 풀어내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이번 캠페인의 메인 영상은 에스파 멤버들이 친구와 함께 신라면을 끓여 먹거나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여행지에서 신라면을 즐기는 모습을 옴니버스 형

식으로 담았다. 영상 마지막에는 ‘행복의 다른 말은?’이라는 질문에 ‘SHIN’이라고 답하는 장면을 통해 신라면의 글로벌 슬로건인 ‘Spicy Happiness In Noodles’를 강조했다.

농심은 메인 광고 1편과 디지털 쇼츠 14편 등 총 15편의 콘텐츠를 공개한다. 쇼츠에는 에스파 멤버들이 신라면이 생각나는 순간이나 선호하는 토핑 등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콘텐츠도 포함된다. 북미와 아시아, 유럽 등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공개한 뒤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심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라면의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 실제 소비 상황에서 제품의 경험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NS홈쇼핑, 전기식 PB 브랜드 키운다

엔웰스 신제품 출시… 판매채널 확대

NS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자체 웰니스 브랜드 ‘엔웰스(nwelt h)’의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6종을 출시하고 NS몰과 TV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이어 해외까지 판매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엔웰스’는 새로운 건강관리 방식을 뜻하는 ‘New’,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Wellness’, 가치 있는 선택을 뜻하는 ‘Worth’를 결합한 브랜드다.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향후 먹고 바르고 머무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웰니스 브랜드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방부 박사가 참여한 ‘국민건강 프로젝트’ 시리즈로 개발됐다. 윤 박사는 제품 성분 배합에 참여했으며, NS홈쇼핑 신규사업본부 브랜드사업팀은 건강기능식품 상품기획 경험을 토대로 주요 건강 고민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제품을 구성했다.

신제품은 TV홈쇼핑 대표 상품인 ‘활력엔 멀티비타 SHOT’과 ‘혈행엔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 PLUS’, ‘기억력엔 징코 PLUS’, ‘눈엔 루테인시아잔틴 PLUS’, ‘혈압엔 코큐텐 ACE PLUS’, ‘혈당엔 바나나 PLUS’ 건강기능식품 5종으로 구성됐다.

신제품 6종은 오는 24일부터 NS몰 내 ‘엔웰스관’에서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활력엔 멀티비타 SHOT’은 이후 TV홈쇼핑 방송에서도 선보인다.

오프라인 판매도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 5종은 오는 9월 7일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4개 점포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NS홈쇼핑은 온라인과 TV홈쇼핑에 이어 생활권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판매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NS홈쇼핑은 오는 9월 중 홍콩 현지 유통기업 ‘한인홍(Korea Han Yin Hong(HK) LTD.)’의 유통망을 통해 엔웰스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GS더프레시, 업계최초 가맹점 500호점 돌파

매출액 등 주요 경영지표 업계 1위

GS더프레시가 20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GS더프레시 송파석촌역점’을 열며 가맹점 500호점을 돌파했다. 슈퍼마켓 업계에서 가맹점이 500개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신규점 출점으로 GS더프레시의 전체 운영 점포는 603개로 늘었다.

1974년 ‘탁기수퍼체인’을 모태로 출발한 GS더프레시는 2010년 가맹 1호점인 신사점을 연 이후 가맹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연간 방문객은 약 1억 5000만 명이며, 점포 수와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지표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GS더프레시는 기존 직영점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점포를 확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근거리 장보기 수요가 증가하자 주거 상권을 중심으로 가맹점 출점을 늘렸다. 이에 따라 2010년 첫 가맹점을 선보인 지 16년 만에 가맹 500호점에 도달했다.

/김서현 기자

유한양행, 신약·CDMO 쌍끌이 성장... 주주환원도 강화

영업이익 669억... 34.1% 증가
렉라자 美·日·中 로열티 수익 확대
4253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유한양행이 본업인 신약가치와 자회사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이 동반 확대되는 성장국면에 진입했다.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제고 전략까지 강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오는 21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NDR에서 유한양행은 체질 개선을 넘어 실적과 R&D 성과가 본격화되는 성장 로드맵을 공유한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총 4253억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의했다. 발행 주식수는 약 8082만 주에서 7476만 주로 7.5%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이와 함께 실적 역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6140억원, 영업이익은 614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4%, 34.7% 늘었다.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95억원, 영업이익은 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34.1% 커졌다.

원료의약품(API) 자회사 유한화학과 개량신약 전문 자회사 애드파마의 매출 확대가 R&D 중심 종속회사들의 손실을 상쇄하며 실적 개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유한화학을 통한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호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지난 5월 미국 브릿지바이오파마와 약 560억원 수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길리어드 사 이온스와는 약 2102억원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계약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도 국산 신약의 혁신성을 입증하며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렉라자와 리

브리판트 병용요법이 유럽에서 상업화되면서 마일스톤으로 3000만 달러(약 400억원)를 수령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출시가 완료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계속 유입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리브리판트 피하주사(SC) 제형에 미국 지급정산용 약제코드(J-code)가 적용되는 등 처방 기반이 한층 넓어졌다.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비롯해 항암제 단독요법은 물론 자사 파이프라인 간 병용요법, 글로벌 제약사 약물과의 병용 임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후속 신약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맞춤형 사업개발(BD) 전략도 구체화한다. 임상시험 공동연구, 뉴코(Newco) 모델 등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 R&D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 신약뿐 아니라 전통적인 의약품 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전문의약품 매출은 3028억원, 일반의약품 매출은

640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 11.3% 증가해 의약품 산업 전반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

헬스케어 사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에 따른 살충제 매출이 축소되면서다. 유한양행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력 제품인 혈당 관리 프로바이오틱스 '당큐락'은 최근 멕시코로 진출했다.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NDR을 통해 회사의 성장 전략을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난 6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mlee236@metroseoul.co.kr



LG생건, 'NAD+ 기술'로 피부 노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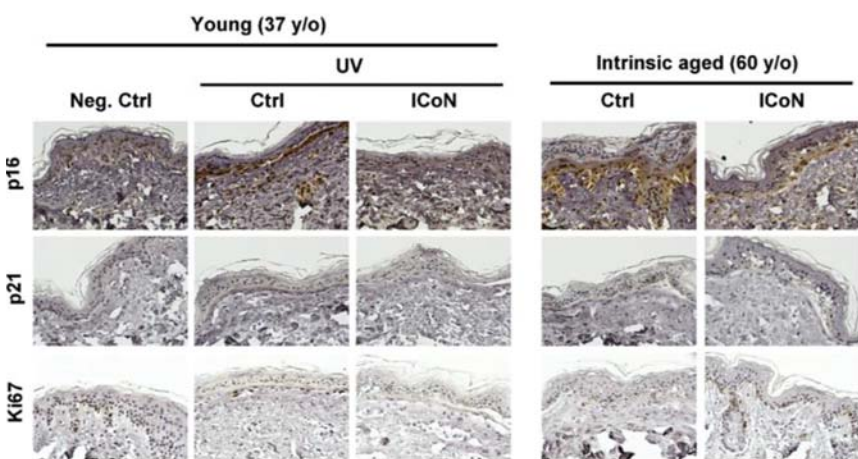
GIST 연구팀과 'NAD Power24' 개발
'머티리얼스 투데이 바이오'에 게재

LG생활건강이 독자적인 연구과학으로 피부과학을 경쟁력을 높인다.

LG생활건강은 독자 NAD+ 전달 기술인 'NAD Power24'의 효능을 입증한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공학 분야 학술지 '머티리얼스 투데이 바이오'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세포 노화 조절의 핵심 인자인 NAD+의 피부 투과력과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NAD Power24를 개발했고 이를 피부에 도포했을 때 피부 노화가 개선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차세대 항노화 성분인 NAD+의 피부 흡수력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NAD Power24'가 피부 노화 신호 및 재생 활동에 미치는 영향.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과 연구팀은 '이온 결합형 변형 리포좀' 기술로 피부 내 NAD+ 투과 효율을 높였다. NAD+를 전달체 내부에 담은 기존 방식 대신 전달체 표면에 이온으로 결합시키고 피부 장벽을 통과할 때 유연하게 변하도록 설계했다. 또 피부 안쪽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된 NAD+는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실제로 'NAD Power24'를 바른 후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DNA가 복구됐고, 산화 스트레스로 늘어난 노화 세포 수는 줄어들었다. 피부 세포의 생존 기간 역시 기존 30일에서 55일로 연장됐다.

/이청하 기자

바이오협, 국내 백신 생산 세제지원 촉구

"보건안보 핵심 품목"

정부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 품목에 백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팬데믹 이후 백신이 국가 보건안보 핵심 품목으로 부상한 만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추가해달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생산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조항 신설을 추진하며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공제 대상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백신은 제외된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국민 건강, 방역 역량 등과 직결됐던 점을 짚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백신을 평상시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핵심 보건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백신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36개 이상 기업이 108개의 백신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또 2025년 11월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 백신 279개 중 23개가 국산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바이오협회는 백신 국내 생산 지원은 단일 기업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부자재, 장비,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청하 기자

까스텔바작, 스타 의존 낮추고 유망주 후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과

까스텔바작이 스타 의존도를 낮추고 실력과 유망주를 발굴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와 실적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형지글로벌은 까스텔바작이 고효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마케팅 구조 조정 국면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까스텔바작 후원 선수인 문정민 프로가 준우승을 거뒀다. 특히 문 프로가 경기 내내 착용한 니트 소재 반팔 티셔츠 제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까스텔바작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지양하고 잠재력 중심의 내실 있는 후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유서연, 박성국 프로 등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을 지



형지글로벌 까스텔바작 후원선수 문정민 프로 /형지글로벌

원하고 임진영·이소유·신아슬 프로 등 유망주에게는 의료 후원과 매니지먼트를 병행하는 등 다각도 지원을 펼쳐왔다.

아울러 레슨 활동 중인 KPGA 프로들을 대상으로 '파트너 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골프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맥도날드 '해피 스낵' 품목 확대 고물가에 가성비 공략

맥도날드가 새로 단장한 '해피 스낵'으로 고물가 속 실속형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한국맥도날드는 인기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해피 스낵'의 상품군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첫 도입된 해피 스낵은 매시즌 다른 구성을 선보이는 맥도날드의 대표 가성비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인기 메뉴인 '불고기 버거'를 신규 품목으로 전격 내세웠다. 기존 음료와 스낵 중심에서 버거 메뉴까지 영역을 넓혀 가성비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추가 상품은 ▲게살 크림 크로켓 스낵 ▲솔티드 카라멜 치러스 3조각 ▲그리머스 셰이크 ▲맥링 2조각 ▲아이스 드립 커피(M·L) ▲'불고기 버거' 등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제스프리, 현대인 위한 영양 관리법 제안

웰니스 토크콘서트 성료

바쁜 일상에 치여 끼니를 거르고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우다 보면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기 쉽다. 제스프리가 아침 식사와 원물 과일을 활용해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방법을 소개했다.

제스프리는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웰니스 토크콘서트 '제스프리 영양론'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딱 찬 일상을 위한 딱 찬 영양'을 주제로, 현대인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원 원장의 강연을 비롯해 가수 겸 방송인 강남과의 대담, 관객 참여형 질의응답, 행운권 추첨 등으로 채웠다.

"아침 먹으면 저녁의 나를 도울 수 있다". 우창원 원장은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원인으로 아침 결식, 배달 음식 중심의 식사를 꼽았다. 그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저녁 식욕이 커져 고칼로리·저각적인 음식을 찾기 쉬워진다"며 "아침에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면 이후 식사에서 할당과 식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중 폭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아침 식사를 강조했다. 간식 역시 과자나 가공식품 대신 키위와 견과류 같은 원물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건강한 지방을 간편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호두를 추천했다. 이어 우 원장은 배달음식에는 부족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을 원물 과일로 보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단,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기 때문에 원물 자체로 섭취해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수습기자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120th
1906-2026
삼육대학교 120주년

www.syu.ac.kr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시대는 변해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 120년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삼육대학교는 사람을 깨우고 세상을 밝혀왔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일 : 2026.9.7.(월) 10:00 ~ 9.11.(금) 18:00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입학처 문의 :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업계, 폭우 피해 남부권에 구호물품·성금 전달

쿠팡, 거제 이재민에 생필품 전달
G마켓, 3억원 성금·피해농가 지원
CU·이마트24, 구호물품 긴급 배송

지난 15일부터 경남 남해안 등 남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유통업계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에 968.1mm, 통영에 778.7mm의 비가 쏟아지며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주택 침수와 단수 등으로 거제와 통영 등에서 50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주거시설과 친인척 집에 머물며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커머스 및 편의점 업체는 전국



19일 경남 거제 옥포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쿠팡

물류망을 가동해 생필품과 식음료를 피해 현장에 긴급 전달하고 나섰다.

쿠팡은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에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 200세트를 신속히 지원했다. 세종 풀필먼트센터에서 출고된 희망박스는 옥포초등학교 등 임시거주시설에 전달됐으며 접이식 3단 매트리스, 차렵이불, 수면용품, 세면도구 등 생활 필수

품 10종으로 구성돼 대피 주민들의 수면과 위생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다.

G마켓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3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성금은 통영과 거제 등 주요 피해지의 시설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수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추석 프로모션 '한가위 벵세일'에서

피해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경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특별전'과 마케팅 지원도 병행한다.

편의점 업계도 발 빠른 구호 활동을 펼쳤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국가 재난 긴급 구호체계인 'BGF브릿지'를 즉각 가동해 BGF로직스 진주 물류센터에서 거제시청으로 컵라면, 음료 등 1천여 명분의 구호물품을 배송했다.

이마트24 역시 행안부 및 재해구호협회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통영 지역에 음료와 간식 등 5000여 개(1000명분)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침수 피해를 본 가맹점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장비 선조치와 상생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21년째 임직원 보양식 선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국내외 임직원 6590명의 가정에 여름철 보양식을 전달하며 무더위 속 노고를 격려했다. 21년째 이어진 보양식 선물을 비롯해 휴게공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임직원 중심의 복리후생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삼복을 전후해 국내 임직원 5469명과 해외 임직원 1121명에게 삼계탕과 소고기 보양식 약 4만인분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롯데리아, 키오스크 교육 전국 확대

롯데리아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마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롯데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올해 8000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리아



현대차, 제주 첫 '판매거장' 탄생

제주 지역 최초의 현대차 '판매 거장'이 탄생했다. 현대차는 김경보 제주변영로지점 영업부장이 제주 지역 최초로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하며 판매거장에 등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영업부장은 1993년 입사한 이래 약 34년간 연평균 147대를 판매했다. 지난 2013년에는 누적 판매 3000대, 2018년에는 누적 판매 4000대를 달성했다.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전국판매왕'에도 선정됐다.

/현대차



iM금융, 청년 중심 멘토링 활동 후원

iM금융그룹이 지역 청년들의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에도 힘쓴다. iM금융그룹 iMS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멘토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iM금융그룹

2금융권, 수해 피해 고객 금융지원

카드대금 최장 6개월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 30% 감면

2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해 결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과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수료 할인도 지원한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해 준다.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도 최대 30% 감면해 준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까지 범위를 넓혔다. 카드 대금 청구를 1~6개월간 상환 유예하고, 최장 6개월 동안 분할 상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서비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17일 경상남도 통영시 신전리 일대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수습·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시스

카드론 이자도 30% 할인해 준다.

롯데카드도 집중호우 피해사실 확인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지한다. 분할 상환과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도 30% 깎아준다.

현대카드는 카드결제 대금과 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청구를 각각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장·단기카드대출 이자를 30% 할인해 준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LG화학, '명장·전문가' 키워 현장 혁신

LG화학이 생산 현장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공정 개선과 안전 혁신 등 현장 성과를 낸 인력을 명장과 전문가로 인증해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산한다. LG화학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김동춘 사장과 장기룡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LG화학 명장·전문가'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G화학 명장·전문가는 현장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내 공식 인증 제도다. 올해는 김병운 전문과장과 장현정 전문실장이 명장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정 개선을 통한 촉매 사용량 절감과 부품 국산화 등 현장 과제를 해결한 임직원 12명이 새롭게 'LG화학 전문가'로 선정됐다.

삼성물산 래미안 조경, IDEA 본상 2건

원페를라·잠실래미안아이파크 수상

삼성물산은 래미안 조경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미국 'IDEA 2026' 환경 부문에서 2건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의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Wind Library Garden)'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블루 포레스트 가든(Blue Forest Garden)' 등 2개 작품을 출품해 나란히 본상을 수상했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와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공동 주최하는 북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매년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문별 최고 디자인을 선정한다.

수상작인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은 한국의 전통 조경 방식인 차경(借景) 개념을 활용해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야외 북카페로 조성한 정원이다.

'블루 포레스트 가든'은 유선형 타하우스와 전망 테크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4개의 위치에서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진공, 수해 전통시장 찾아 복구 지원 점검

인태연 이사장, 거제 옥포·통영 방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모색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태연 이사장은 전날 경남 거제시 옥포시장과 통영 중앙시장을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피해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복구 상황을 청취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동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현재까지 경남지역 17개 전통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 유출로 점포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소진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이사장은 시장 뿐만 아니라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을 관할 하는 소진공 통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마사회, 하반기 힐링승마 1300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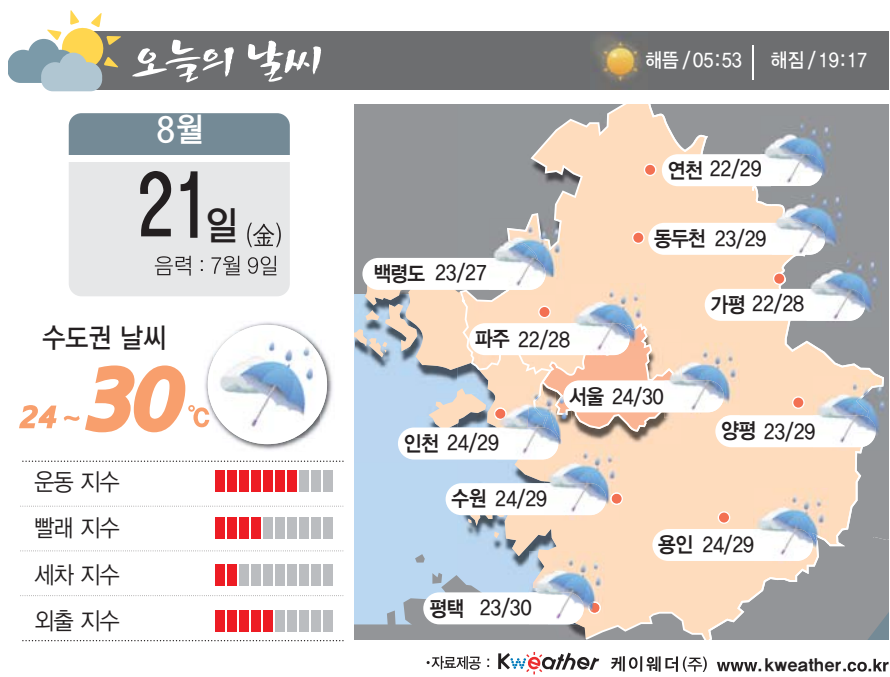
사회공익 500명·일반국민 800명

한국마사회가 '2026년 하반기 힐링승마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말과의 교감을 통한 국민의 심신 회복과 승마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힐링승마는 승마 활동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마사회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승마를 경험하고 말이

주는 치유와 교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공익 분야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힐링승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총 2613명에 이어 하반기 모집인원은 사회공익 분야 500명, 일반국민 800명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국 9개 지방국립대 재학생과 전국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재직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 점의 스시에도 무게가 있어야 한다

▶ 절제 ▶ 집중 ▶ 균형

8/19 (수) 39호점,
으뜸스시 제주연북로점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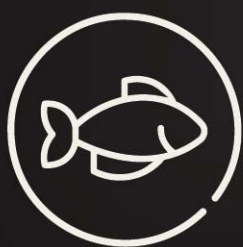
2,200원 균일가

가성비 & 가심비
모두 만족



100가지 이상 메뉴

남녀노소, 가족 모두
만족하는 메뉴 구성



당일 작업 · 당일 판매

참치·활어 중심의
신선한 메뉴



서울 및 전국 창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보 창업자도 가능



창업상담



1644-0622

사관학교 대전 통합과 입시 생태계의 붕괴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국가 정책과 제도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덕목으로 지나침과 부족의 양 극단을 배제하는 ‘중용(Mesot’s)’의 실천적 지혜를 제시했다. 중용이란 기계적 중간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목적과 수단을 이성적으로 규명하는 결단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국방당국이 추진하려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대전 통합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안은 이러한 중용의 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학령 인구 절벽에 따른 정원 감축과 3군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각사관학교별 정원 미세조정(Downsizing)과 교과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를 외형적 토목 공사로 왜곡한 과잉불급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군종별 브랜드 가치 훼손과 입시생 수용성 저해**

사관학교 입시는 단순한 대학 진학이 아닌, 명확한 군사적 정체성과 장기적 진로 비전을 선택하는 특수목적 대학의 입시 구조를 갖는다. 육군은 지상전 리더, 해군은 진해 인프라 기반의 해양 안보 전문가, 공군은 청주성무비행장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인재 양 성하며 독자적 입시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 수험생들은 각군종 고유의 작전 환경과 졸업 후 전문성을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특수목

적 대학에 도전한다. 그러나 3군을 내륙 도시 대전에 모아 획일화된 국군사관학교로 강제 통합하면 진로의 명확성과 브랜드 매력도는 소멸한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버스를 타고 해상 실습을 가는 기형적 교육 모델은 수험생에게 정체성 혼란과 진로 불확실성을 안겨줄 뿐이다.

◆ **획일적 전형에 따른 선발 체계 무력화와 최상위권 이공계 자원의 이탈**

현재 입시 전형은 첨단 이공계 학과 선호와 의학계열 모집 정원 확대 여파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현행 입시는 각 군의 특성에 맞춰 체력, 적성검사, 비행적성 등 다모듈화된 2차 전형을 운영하지만, 단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될 경우 평가 요소가 표준화·획일화돼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다면 인재 선발 체계가 무너진다. 이러한 유동적 입시 환경 속에서 사관학교마저 군별 특수성을 잃는다면 상위권 수험생들은 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상실한다. 결국 1차 시험 경쟁률과 합격선이 동반 폭락하면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해야 할 정예 장교자원의 질적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 **군사적 특수성 무시가 초래할 역사적 충격과 입시 생태계의 파괴**

역사적으로 군 조직의 내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정치적·외형적 통제에만 집착한 정책은 참담한 비극을 낳았다. 고려 시대 문벌귀족 사회가 군사 조직의 고유성을 유린하고 무신들을 소외시켰을 때 발발한 무신의 난은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입시 관점에서도 군사적 전문성과 수험생들의 실제적 수요를 외면한 일방적 정치 통합의 강행은, 수년간 사관학교 진학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킬 수 없는 혼란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장교단 내부의 기득권 갈등을 방지하기는커녕 현장의 입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은 국가 정예 장교 양성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입시적 자해 행위다.

◆ **자운대 연계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용적 개혁 방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철학은 입시 생태계를 살리고 정예 장교를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현 체제에 안주해 특정 출신의 독점 구조를 방지하는 것이 ‘부족’의 오류라면, 지형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물리적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과다’의 오류다. 안보와 입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용의 길은 기존 인프라와 브랜드를 유지하되, 내부 교육 소프트웨어와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는 실천적 지혜에 있다. 진해, 청주, 서울에 구축된 입시 브랜드와 전문 실습 인프라를 온전히 보존해 우수 인재를 흡수해야 한다. 대전 자운대는 신규 캠퍼스 부지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합동군군사대학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인프라를 활용해 3, 4학년 생도들의 ‘소프트웨어적 합동 교육 및 첨단 국방과학 교류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진정한 중용이다. 외형적 대전 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실 있는 교육 개혁과 공정한 인사 구조 확립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AI·무인화 시대, K-방산 ‘연결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 지 수 접
유 혜 온
(산업부)

한화시스템이 오스트리아 슈벨의 무인기에 국산 5G 기지국과 통신·항전장비를 엮는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해외 기체에 국내 기술을 심는 방식이다. HD현대, 대한항공, 현대로템 역시 해외 기업의 AI·자율임무 기술을 자사 함정과 무인기, 지상 플랫폼에 접목하고 있다.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전략이다. 한국 기업이 강점

을 가진 기술은 해외 플랫폼에 적용하고 필요한 역량은 해외 협력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기술 의존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묶는 체계통합은 방산의 오랜 기본 원리다.

달라진 점은 AI와 무인화의 확산으로 ‘연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단일 플랫폼 내부의 결합을 넘어 무인기와 무인차량, 유인 전투체계 등 서로 다른 전력을 연결해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무인자율체계를 확대하는 주요국들이 상호운용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서로 다른 전력이 작전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움직이려면 체계 간 상호운용을 위한 기술과 표준이 뒷받침돼야 한다.

AI·무인전력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술의 국적이나 무기 단품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기술 확보는 기본이다. 여기에 기술을 적절한 플랫폼에 적용하고 서로 다른 유·무인 전력과 연결해 실제 운용 가능한 체계로 구현하는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K-방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단일 무기체계의 성능과 핵심기술 국산화율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확보한 플랫폼과 센서, 통신망,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작전체계로 연결하고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함께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김상회의四季

삼복(三伏) 지혜



2026년 병오(丙午)의 물상 자체가 하늘의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해의 기운인 병화(丙火)와 땅의 지기 역시 뜨거운 열을 품고 있는 오화(午火)인지라 한낮의 해와 열기가 팽배한 형국이다. 전세계가 열풍 선이 뒹긴 처처럼 전례 없는 이중 열도를 겪고 있다. 이는 북극 얼음이 녹아내려 고기압의 형성이 두서없이 강해진 탓도 있지만, 음양 오행적 관점에서 지구가 병오의 기운을 마주하였으니 천지자연의 조화가 어찌 이리도 들어맞는지 신기할 뿐이다. 삼복은 여느 해보다도 남다른 열기에 몸을 상하기에 십상이니 잘 유념하여 지혜로운 여름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양력 7월 15일이 초복이었고 중복은 7월 25일이었으며 말복은 8월 14일이었으니 하지로 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일(庚日)이 초복과 중복이 되며 말복은 입추 절기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된다.

입추가 지났으니 아침저녁으로는 열기가 사뭇 약해지기는 하나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이열치열의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은 여름을 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다. 삼복을 정할 때 특별히 경일(庚日)을 정한 데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해가 쇠를 녹일 정도의 열기를 가진 날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복날의 복(伏)자에는 개를 나타내는 견(犬)자가 들어있으니 그 더운 열기에 개마져 허를 늘어뜨리며 엎드린다는 모양새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은 보통 열을 간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병오년은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다. 말복은 입추가 지나야 말복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 이런 말복을 가리켜 월복(越伏)이라 하니 우리 조상들의 풍부한 사유력도 느끼게 된다. 오늘날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 시절 견공들의 희생에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보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판권

결합스도쿠110

중고스도쿠용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3
				8		9
						4
8					4	2
	6	4				3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7	
1		7			2	6		5

8	2	9	9	8	1	6	2	7
2	9	8	7	1	6	8	1	9
6	7	1	9	8	2	1	8	9
6	9	6	1	8	7	9	9	2
9	1	8	6	2	7	9	1	8
1	2	7	8	9	1	6	8	
7	8	9	2	6	1	8	9	1
1	6	2	8	9	8	9	7	1
9	8	1	1	7	9	2	8	6

9	6	9	2	8	7	1	8	1
2	8	1	6	9	1	7	9	8
1	7	8	9	8	1	9	6	2
7	9	2	1	6	8	9	1	8
8	1	9	7	1	9	2	8	6
1	8	6	8	9	2	1	7	9
9	9	7	8	1	8	6	2	1
8	2	1	1	7	6	8	9	9
6	1	8	9	2	9	8	1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8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르헨티나 프리바도… 가족자켓을 입은 말백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8

아르헨티나의 와인너리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가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와인샵에서 시음회를 했을 때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걸어들어오는데 다들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걸치고 있는 가족자켓이 다름아닌 대표 와인 '프리바도 말백'의 라벨로 만들어서다. 특유의 가족 라벨을 패치워크 방식으로 이어 붙인 것. 무려 400명이 넘는 와인의 라벨이 들어갔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가 수출을 시작한 게 2007년이니 어렵잡아도 이 여성은 매년 40병, 매달 서너병의 프리바도 말백을 꾸준히 마셨단 얘기가. 프리바도를 알아가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시간 질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즐겼다는 것. 믿고 마신다는 아르헨티나 말백이지만 프리바도는 묵직함보다는 가족 자켓 처럼 멋스럽고 편한 말백이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는 2003년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 자리잡은 와인너리다. 멘도사는 멘도사인데 우리가 기준에 알던 멘도사가 아니다. 그간 한국에 알려진 멘도사 말백은 안데스 기슭과 맞닿은 북서부 지역이 대부분이다. 반면 보데가스 호르헤 루비오는 멘도사의 최남단, 남부 오아시스(Oasis Sur)다. 반사막같은 기후인 멘도사는 안데스에서 녹아내린 물이 오아시스를 만들고, 포도나



왼쪽부터 프리바도 샤도네이, 프리미아도 말백, 프리바도 말백. /안상미 기자

무는 이 빙하수를 마시고 자란다. 빙하수가 흘러 생긴 아투엘(atuel) 강과 디아만테(diamante) 강이 만들어낸 일대 지대가 바로 남부 오아시스다. 후발 주자이다 보니 법정 원산지명은 아니지만 지금은 멘도사 남부를 대표하는 원산지명처럼 쓰이고 있다. 프리바도 역시 라벨 전면에 남부 오아시스를 기재하고 있다.

설립자인 호르헤 알베르토 루비오는 처



한 덴마크 여성이 프리바도 와인의 가족 라벨 400개를 패치워크 방식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자켓을 입고 있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

음부터 남부 테루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호르헤는 “거친 대자연과 서늘한 바람이 맞닿은 남부 오아시스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가장 차별화된 테루아로 포도에 강렬한 생명력과 깊은 아로마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남부라는 단어만 보면 와인 애호가들 입장에선 고개를 가웃거릴 수밖에 없다. 일교차가 큰 북부 산기슭보다 분명 낮은 지대에서 평균잡히게

익어버린 벌크와 인용 포도가 떠오르니 말이다.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보자. 상대적



한 덴마크 여성이 프리바도 와인의 가족 라벨 400개를 패치워크 방식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자켓을 입고 있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

으로 낮은 지대인 것은 맞다. 그런데 해발 고도 1000미터 안팎인 북서부보다 낫다는 것이지 프리바도의 포도밭이 위치한 헤네랄 알베아르(General Alvear) 지역은 기본적으로 400미터 이상이다.

여기에 일조시간은 연간 2200시간에 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고도 때문이 아니라 밤이 되면 고지대의 차가운 공기가 지형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냉기 배수가 일어난다. 최남단인데 서리와 우박 피해를 막기 위한 미세 스프링클러와 우박 방지망이 마련된 것도 그래서다.

토양은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충적토다. 석회질 토양에 자갈이 많은 하층토로 이뤄졌다.

프리바도(Privado)는 호르헤가 선보인 두 번째 라인이다. 영어로 프라이빗(private)이란 뜻으로 생산자와 테루아의 개성을 좀 더 담고자 했다.

유명세를 탄 가족라벨을 선보인 것도 프리바도 부터다. 청바지를 유독 좋아했던 호르헤가 허리 뒷춤의 가족라벨에 착안해 와인 라벨로 만들었다.

‘프리바도 말백’은 잘 익은 과실의 향과 맛은 딱 아르헨티나 말백인데 산도가 워낙 좋다보니 균형감이 좋고, 마시기도 편하다. 타닌은 순하고, 신세계 레드 와인 특유의 부담감이 전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웬만한 화이트 와인도 알코올 도수가 13도를 넘는데 프리바도 말백도 13도 밖에 안된다.

좋은 기후 속에서 레드와인은 여러여러한 말백이 나왔다면 화이트와인은 강단있는 샤도네이이다.

‘프리바도 샤도네이’는 열대와일부러 배와 청사과까지 과실향이 풍성한 가운데 산도로 골격도 잘 잡혔다. 비비노 평점이 무려 4.4에 달한다. 상위 1%(4.5)에 가까운 평가다.

‘프리미아도 말백’은 수상 등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빈티지를 섞어 만든다. 프리미아도(Premiado)가 영어로 상을 받았다(award-winning)는 뜻이다.

프리미아도 역시 라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가족 라벨인 것은 똑같다. 프리바도가 단면 부착식이라면 프리미아도는 와인병에 피쳐처럼 둘러져 있다. 모두 수작업으로 한거라 손으로 뒤흔도 하다. 국내 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요 라벨을 잘 탈착해서 동전 지갑으로 만들어 쓴다고 한다. 그럼 다들 가족라벨로 무얼 할지 궁리해보시길.

/smahn1@metroseoul.co.kr



metro

히어로 뒤에 숨겨진 ‘엄마’의 반짝이는 청춘을 찾다

영화 ‘오케이 마담2’ GV

이철하 감독, 엄마의 정체성에 주목 주·조연 아우르는 디테일한 연출력 액션장면에 더해진 감정선도 인상적 “극장서 마음 편히 즐기는 영화 되길”

지난 19일 서울 CGV 왕십리에서 영화 ‘오케이 마담 2’ 관객과의 대화(GV)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이철하 감독과 주연을 맡은 배우 엄정화 그리고 지원사격에 나선 천만 관객의 거장 김한민 감독이 참석해 푸른 바다처럼 다채롭고 시원한 대답을 내놨다.

◆엄마라는 거센 파도 속에 잠시 접어둔 청춘의 설렘

이철하 감독은 이번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울림으로 ‘엄마라는 존재의 자아 찾기’를 꼽았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평범해진 엄마의 일상, 그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청춘의 반짝임과 정체성에 주목한다.

영화 속 미영(엄정화)은 호화 크루즈에



지난 19일 저녁 10시 서울 CGV 왕십리점에서 김한민 감독(왼쪽부터), 배우 엄정화, 이철하 감독 등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 뜻밖의 해프닝을 겪는다. 한 여성이 일상의 무거운 닳을 내리고 스스로 청춘의 뜻을 올리며 삶의 설렘을 회복해 가는 뜨거운 여정이다.

이 감독은 “우리의 어머니들도 한때는 톡톡 튀는 사고뭉치였고 신나게 무대를 누비던 청춘이었다”며 “엄마라는 거친 파도를 건디느라 잠시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활력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가슴 뭉클한 감정과 내가 진짜 신나는 일들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주·조연의 앙상블로 이뤄낸 촘촘한 스토리

이날 관객의 시선으로 대담에 나선 김한민 감독은 영화의 연출적 결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 감독은 “주연의 그늘에 가려지기 쉬운 주변 캐릭터들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결을 살려냈다”며 주·조연을 아우르는 이철하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력을 짚었다. 각 출연진들은 저마다의 파도를 타며 코미디와 드라마의 절묘한 균형을 완성했다

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액션 장면에도 갖는 감정선의 개연성도 인상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김 감독은 “가족애가 액션의 당위성으로 자연스럽게 작용했다”며 “마담의 화려한 뒤에 숨겨진 엄마의 마음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덧붙였다.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배우 엄정화의 몰입

배우 엄정화 역시 이번 작품이 지닌 남다른 의미와 현장에서의 추억을 풀어냈다. 1993년 데뷔부터 수많은 히트작을 남겼지만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의 속편으로 다시 관객을 찾은 것은 35년 연기 인생에서 처음이다.

그는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내에 무사히 촬영을 마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다”며 당시의 중압감을 떠올렸다. 배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운동 도구가 없자 물통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며 몸의 감각을 세웠고 거친 액션 동선을 완벽히 체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다.

또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보태며 영화에 애정을 쏟은 그는 “관객들이 극장

에서 마음 편히 웃고 즐기는 통쾌한 시간을 계속 만들고 싶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영화가 전하는 유쾌함 뒤에는 거친 제작 환경을 극복한 제작진의 피와 땀이 녹아 있다. 감독과 배우, 스태프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서 사력을 다했다. 이철하 감독은 “배를 대여하는 비용이 막대해 아침부터 쉬지 않고 A, B, C팀을 동시 가동해 10시간 이상 연속 촬영을 진행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한국 영화 시장을 향한 현실적인 진단도 짚었다. 김한민 감독은 “중급 영화들이 시장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한국 영화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한다”며 ‘오케이 마담 2’와 같은 작품들의 가치를 강조했다. 대작 중심으로 편중되기보다 다양한 규모의 상업 영화들이 살아남을 때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푸른 바다의 통쾌함과 엄마라는 따뜻한 체온 그리고 마담의 당당함을 품은 ‘오케이 마담 2’. 현장에서 증명된 감독의 연출적 집념과 배우들의 열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들을 응원하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트럼프 “北 핵무기 57기” 논란…‘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우려 심화 /사진 뉴시스

▲코로나 영웅 모더나의 부활…mRNA 암백신에 주가 177% 폭등

▲걸프 산유국, 수출 위한 ‘유조선 확보전’…선박값 2008년 이후 최고

▲젤렌스키, 대통령실 부실장 경질…자금세탁 연루 의혹

▲中, 기준금리 1년물 LPR 3.0% 5년물 3.5% 15개월째 동결

▲美와 교감 나서나…“‘해임’ 우크라 前국방, 이르면 내주 방미 검토”



한국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 중심
체질전환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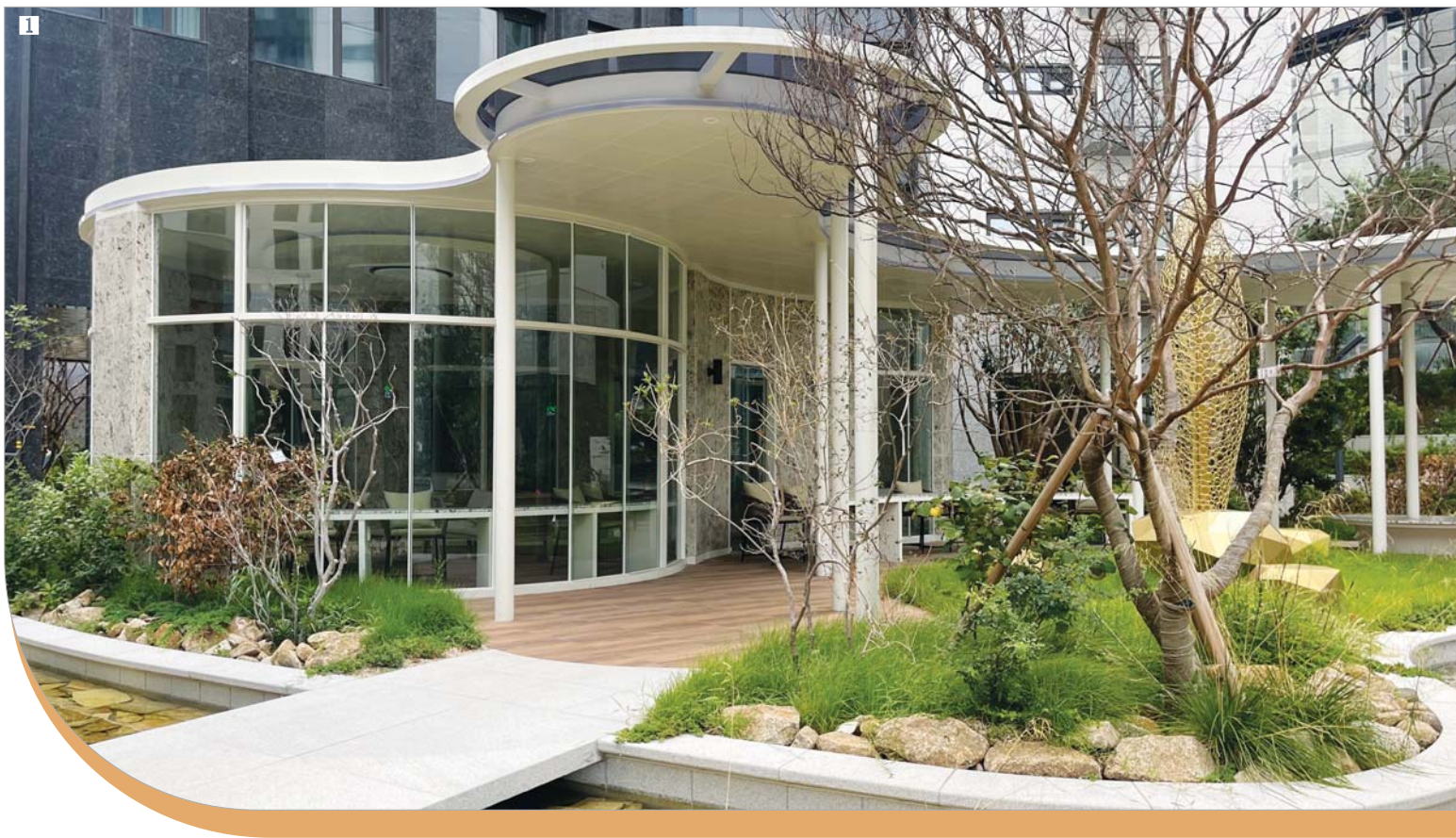
아파트의 미학(美學)

오티에르 반포

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고급스러운 외관에 한강변 물결 표현
폭이 좁고 긴 특징 살린 정원형 조경

자연주의·한국식으로 꾸민 메인정원
수경시설, 금빛 조형물, 수목 한눈에
제주도 등 전국에서 공수한 나무 식재

보행동선 따라 정원, 휴게공간 이어져
자연석, 초화류 등 자연 둘러싸인 풍경



겹겹의 초록, 골짜기 물소리 한국의 美 답은 ‘단아한 정원’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을 나와 걸으면 얼마 안 있어 ‘오티에르 반포’가 나타난다.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대지 위에 두 개 동이 서 있고, 15층 높이의 스카이라이프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른다. 스카이라이프까지 이어지는 동은 층수를 달리해 한쪽에 서 다른 쪽으로 층층이 물러나는 계단식 실루엣을 만든다.

단지는 긴 축을 따라 수목과 정원, 휴게공간 등 조경이 하나 씩 모습을 드러내는 구조다. 수목이 겹겹이 심어진 수풀이 주동 출입구까지 이어져 집을 나설 때는 자연이 배웅하고, 돌아 올 때는 다시 마중 나오는 듯한 모습이다. 폭이 좁고 긴 단지 특징을 살려 하나의 기다란 정원으로 조경을 꾸몄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선 오티에르 반포는 신반포2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했다. 전용면적 44㎡부터 170㎡ 펜트하우스까지 여러 주택형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오티에르(HAUTERRE)는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프랑스어로 ‘높은·귀한·고급’을 뜻하는 ‘오티(Haute)’와 ‘땅·영역·대지’를 의미하는 ‘테르(Terre)’를 합쳐 ‘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가 실제 준공 단지에 적용된 첫 사례다. 신반포18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신반포’도 지난 6월 준공을 마쳤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만큼 오티에르 반포는 외관에도 차별화를 줬다. 푸른 계열의 특화 색상에 한강변의 물결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문주 역시 일반적인 석재 마감보다 화려하다. 흰 바탕 위로 회색과 검은색 결이 소용돌이치듯 번지는 대리석 무늬가 돋보인다.

단지로 들어서면 커뮤니티시설 ‘클럽 오티에르’가 먼저 보인다. 낮고 완만하게 휘어진 건물 전면엔 ‘HAUTERRE’ 글자를 크게 새겼고, 기둥과 벽에는 문주와 같은 회색 계열의 석재를 사용해 디자인을 통일했다. 건물 옆 작은 중정에는 바위를 두른 원형 화단과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한다.

주동 출입구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경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정원이 펼쳐진다. 자연주의와 한국식 정원의 미감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가져온

나무도 옮겨 심었다.

지붕처럼 넓게 뻗은 차양은 정원을 따라 휘어진 모양이고, 그 아래로는 정원을 향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다. 자리에 앉으면 수경시설과 금빛 조형물, 정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바닥도 나무 마룻바닥처럼 마감해 석재와 유리로 구성된 건물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티하우스 주변에는 얇은 물길을 돌렸다. 바닥에 돌을 깔 물 위로 작은 분수가 솟고, 물길 안쪽에는 풀과 나무, 자연석을 촘촘히 배치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금빛 조형물이 길게 솟아 있다. 작은 원형 고리를 엮어 만든 타원형 구조가 위로 뻗어 나무나 새순을 연상시킨다.

오티에르 반포의 조경은 보행 동선을 따라 정원과 수경시설, 휴게공간이 차례로 등장해, 마치 골짜기를 따라 걷다가 물과 숲을 만나는 듯하다.

메인 정원을 지나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수경시설이 모습을 드러낸다. 벽 사이로 흘러내린 물은 아래 연못으로 이어지고, 앞쪽에서는 작은 분수들이 솟아오른다. 물줄기가 가느다란 물방울로 떨어지며 반짝인다.

사방이 열린 휴게공간도 긴 테이블과 함께 마련됐다. 입주민들 여러 명이 머물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물이 잔잔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정원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개방형 통로에도 작은 전망 자리가 나 있다. 벽 사이로 바테이블과 의자 두 개를 놓고, 맞은편 정원을 향하도록 했다. 자투리 공간까지 조경을 감상하는 자리로 활용했다.

단지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양쪽에는 꽃을 피운 나무와 수형이 굽은 나무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중간중간 놓인 나무 벤치에서는 숲에 둘러싸인 듯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반대편 보행 출입구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입체 패널을 적용했다. 정문에서 사용한 특화 색상을 출입구와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서 반복해 통일감을 높였다.

오티에르 반포의 조경은 작은 규모에 최적화된 밀도 있는 구성이 특징이다. 하나의 거대한 조경시설로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 출입구부터 산책로, 숨겨진 조경까지 차례로 연결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1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에서 공수한 나무가 식재된 단지 내 정원. 2 다양한 수목이 식재된 단지 내 산책로. 3 단지 안쪽에 조성된 수경시설. 높낮이가 다른 석재 벽을 따라 흐르는 물과 다양한 수목이 배치됐다. 4 수경시설 옆에 위치한 개방형 휴게공간. /성채리 수습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선수단, AG 금빛 다짐…“일본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 꽂겠다”
▲‘데뷔전 데뷔골’ 이강인, 단 13분 만에 ‘아틀레티코 7번’ 자석 증명 /사진 뉴시스

▲‘손흥민 27분→5경기 연속 침묵’ LAFC, 콜로라도에 0-1 석패
▲K-콘텐츠 인기 뜨겁네…日 ‘K엔타메라보’ 공개방송에 1200명 시청

▲‘취사병’ 이어 ‘신병4’까지…티빙, 군텐츠 장기 흥행 노린다
▲하정우 ‘내부자들’ 프리퀄 주연…안보현·박해준·정성일 출연